소년단

1958.10

할머니 보고 싶어

류 연옥

…이웃집 할머니처럼
　온동네 할머니들처럼
　그보다 더 맘 좋은 할머닐레지…
남이는 언제나 생각하는 할머니,
그 할머니가 보고 싶어
남이는 한사코 졸라대누나.

사진마저 없으니
아버지는 정말로 딱했다.

인자하신 어머니
외아들 길러내신 어머니
맏손주 보시면 얼마나 기쁘실가?
붉은 넥타이 처음 맨 아들 남이를
아버지도 어서 가 보이고 싶었다.
그러나 사진 한 장 찍을 수 없었던 살림,
그 고장에 홀어머니 두고 온 아버지
아버지는 진정 가슴 아팠구나.

고향 길 뻔해도 갈 수 없으니
아버지의 심정 사뭇 저리어 들었다.

락동강'가 작은 마을
지주의 땅으로 그냥 남아 있는 넓은 벌,
사철 여기서 허덕이며 굶주린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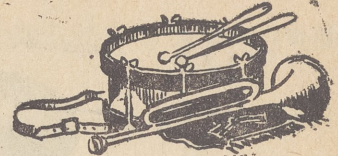
오늘도 홀로 한숨 지을 늙은 어머니
아버지는 어룩어룩 눈 앞에 그려 보시나?

…의용군으로 나서던 이 아들
용감하던 인민군 전사,
오늘은 제대 군인, 모범 작업 반장,
새 마을 문화 주택에서 남이네 아버지…
어머니는 딱이는 모르시리라.
딱이는 몰라도 어머니는 은밀히 기다리시리
반가운 공화국 소문 들을 때마다.
아버지는 남이에게 이야기하였다.

—남이야 가자 이 담에
락동강'가 할먼네 동네로,
너랑 공부 잘해 중 학교 새 모자 쓰고
할머니께 보이자꾸나.
대학생된 네 모습 할머니께 보이자꾸나.

온 벌판에 황금 벼이삭 사락대는데
바람에 안겨 울려 오는 스피카 소리,
—백미 15만석을
천과 신발, 물'고기도 듬뿍…
공화국은 따뜻한 선물 보내겠다누나,
남조선에서 굶주려 헤매는 숱한 실업자 고아들에게,

다섯해 계획이 열어 줄 길,
아버지네 고향 길도 바라보듯이
높다란 동뚝을 남이는 앞장 서 걷는다.

소년단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8년 10 호　　내　용

앞표지 : 깨끗하고 명랑하게,　　뒤'표지 : 체육 무용……리 종록 촬영

길'가에 있은 아름다운 일

☆ 소나기가 쏟아지던 날 ☆

제 6 분단 동무들은 방과후만 되면 의례히 네거리로 갑니다. 그들은 길'가에서 오가는 손님들의 길 안내도 해 드립니다. 그들은 또 자기들의 고향 길'가를 아름답게 단장도 합니다.

어느 날에 있은 일입니다. 로 양자 동무는 거리에서 소나기를 만나 우산을 펼쳐 들었습니다. 비는 사정없이 퍼부었습니다.

양자 동무는 국영 백화점 앞 네거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양자 동무는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네거리 한가운데서 서성거리며 서 있는 아저씨 한 분을 보았습니다. 그 아저씨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양자는 그가 앞을 못 보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나기는 더 억세게 쏟아졌습니다. 양자는 급히 아저씨에게 달려 가 우산을 드리면서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맹인 동맹으로 찾아 가던 길이였습니다.

양자는 우산을 기울여 아저씨에게만 씌워 드리고 길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양자 동무의 옷은 함뿍 젖었습니다. 그러나 양자 동무는 몹시 기뻤습니다.

☆ 영화 《심청전》을 구경하던 날 ☆

손꼽아 기다리던 천연색 영화 《심청전》을 감상하는 날이였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일찍부터 영화관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먼저 영화관으로 가겠다던 장 명자와 변 순란 동무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어떻게 된 일이냐고 서로 물었으나 누구 하나 그 리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영화관에 들어 가서도 자리를 내 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가요?

그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명자와 순란 동무가 영화 구경 가느라고 달음질 치며 병원 앞으로 이르렀을 때 늙으신 한 할머니가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애! 양로원으로 갈려면 어디로 가야 옳으니?》

《저 큰 집 뒤로 가면 돼요!》하고 손'짓을 하면서 그들은 또 달려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하고 문뜩 서버렸습니다. 그들은 지난 날 분단 모임에서 하신 분단 지도원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키웠던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웃사람들을 존경하며 길'손님의 물음은 잘 가리켜 드려야 합니다.》

그들은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벌써 멀리 떨어진 할머니는 딴 쪽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 하고 부르며 할머니에게로 달려 갔습니다. 은률군에서 오신 할머니는 웅장한 건물들이 꽉 들어 선 도시가 낯설어서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그들은 영화를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는 것은 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할머니와 같이 걸었습니다.

☆ 길'가에서 얻은 물건 ☆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은 낯선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 손님은 교장 선생님에게 황 옥순 동무가 자기의 《연구 수첩》을 찾아 준 기특한 행동에 대하여 높이 칭찬하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는 옥순 동무를 꼭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황 옥순 동무는 교장 선생님의 부름에 교장실로 찾아 왔습니다.

아저씨는 옥순이를 와락 그러 안으면서 《소년단원 동무! 참으로 고맙소. 그 수첩은 내가 옹진 수산 협동 조합에 있으면서 김 따는 방법을 기계화하기 위해 설계한 중요한 내용들이 씌여져 있었소.》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옥순이도 기뻤습니다.

× ×

6분단 위원장 리 종숙 동무는 기자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해주시만 해도 옛날에 없었던 굉장히 좋은 문화 주택들이 꽉 들어 차고 우리들의 생활도 나날이 향상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눈부시게 발전하는 행복한 사회주의 조국의 품 안에서 자랍니다. 그러니 우리 소년단원들의 행동도 달라져야 할게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들은 소년단 생활을 더 잘하며 더 잘 배워 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황남 해주 제 6중 학교 대 6분단에서

본사 기자 최 화 규

그 림 최 은 석

바늘

글 박 달

그림 유 환 기

(전호에서 계속)

보천보 사건에 관계된 60여 명 동무들은 일제이 상소하여 다시 재판할 것을 굳게 결의하고 상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 날입니다.

함흥 감옥 계호계에서는 사형 받은 여섯 동무와 무기 징역 받은 네 동무에 대하여 수쇠를 채워 두어야 되겠다는 의논이 있어 간수장 놈이 숫한 간수놈들을 데리고 우리 감방 있는데 와서 내게도 수쇠를 채워 놓고 갔습니다.

격분에 넘친 동무들은 감옥 측에 즉시 항의하였습니다.

《수쇠를 풀어 달라.》하였지요.

그랬더니 그 후 한 시간도 못되여 계호계 주임놈이 수쇠 찬 동무들을 불러서《수쇠는 풀어 줄테니 감옥 규칙을 잘 지켜 주기 바란다.》고 경고하고 말았습니다.

1942년 3월 초에 상소한 60 여 명 동무들은 세 차례로 나누어 서대문 감옥으로 갔습니다.

우리들은 함흥에서 서울로 올라 가는 사이에도 서로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자고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사실 보천보 전투를 앞두고 나와 박 금철 동지는 김 일성 원수를 찾아 가 뵈옵고 새로운 임무들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국경 지대에서 일제 군경놈들의 움직임을 정찰하며 보천보 시가의 략도를 마련하여 유격 부대에 제공하는 일이였습니다. 이 임무는 주로 박 금철 동지에 의하여 수행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접 이 전투에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놈들이 꾸며 놓은 조사 서류가 억지로 꾸며진 거짓이라고 끝까지 주장할 근거와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굳센 결의와 확신을 가지고 서울 복심 법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재판장놈이 우리 사건 동무들 중 유기 징역 받은 동무들을 전부 재판소에 불러다가 《너희들은 아무리 상소하였다 하여도 결국은 한

가지 징역을 받을 것이니까 차라리 지금부터 징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내가 재판장으로서 너희들을 생각해서 특히 권고하니 잘 들어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무들은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때에 나는 그 재판장의 엉터리 없는 수작을 깨뜨리기 위하여 서대문 감옥 계호계 주임을 찾았습니다.

《우리 사건 동무들은 모두 애매한 죄에 걸려서 여기까지 끌려 오게 되였는데 그것을 옳게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 변호사를 대겠는데 그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 사건 동무들을 면회시켜 주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감옥 규칙상 그것은 안 돼.》하고 계호계 주임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꼭 필요하니까 부탁한다고 하였더니 계호계 주임놈이 낯작을 찡그리며 이 궁리 저 궁리 하다가

《그러면 네 대신에 내가 전체 피소자들(우리 사건 동무들을 말함)을 청해다가 네 의견을 전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여러 가지로 사정하다가 계호계 주임에게 맡겼습니다.

계호계 주임은 나와의 약속을 그 대로 지켜 주었습니다.

그 후부터 우리 사건 동무들은 변호사까지 선택해 가지고 싸워 보자고 굳게 약속하였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준비할 수 있는 동무들은 집에 련락하여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하여 《오하라》라는 일본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게 되였습니다.

《오하라》라는 일본인 변호사는 본래 대구 복심 법원 검사장을 하다가 그만두고 변호사 사업을 개업한 사람인데 민족적으로나 계급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의 원쑤이지만 그 당시 변호사들은 돈벌 궁리에 눈이 어두어 있었고 한편 이런 큰 사건을 맡아서 승리하기만 하면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칠 수 있었기 때문에 잘 해 주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점을 리용한 것입니다.

《오하라》는 그 후부터 우리 동무들을 부지런히 만나 가면서 억울한 죄를 쓰게 된 리유를 자세히 듣고 나서 자기 서기를 량강도 등지에 직접 보내였습니다. 거기에는 증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난 날 거짓 증인으로 나서게 된 리유를 말하였습니다. 즉 거짓말 증인으로 나서기를 거절한 리유로 혜산 경찰서에서는 가혹한 고문을 하더라는 것까지 죄다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서기는 증거까지 모두 받아다가 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변호사의 말 한 마디는 우리 말 열 마디보다 효과가 더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서울 복심 법원 재판장으로 다른 사람이 교체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싸워오던 중 1943년 8월부터 서울 복심 법원 재판이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9월 2일에 혼자 공판정에 나가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심문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다른 동무들도 계속 여러 날을 두고 심문을 당하게 되였습니다.

그 때마다 우리 동무들은 계속 같은 말로 보천보 전투에 참가한 것을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혜산 경찰서에서 숫한 동무들이 학살 당한 만행도 여지없이 폭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재판장에게 이 사건 조사서가 전혀

근거 없이 거짓말로 꾸며진 것이니 보천보에 가서 다시 조사해 보아 달라고 강경히 주장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천보 전투에만은 직접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 조사를 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것이 달성되여 재판장은 배석판사 두 사람과 서기, 통역, 검사, 변호사 등을 데리고 혜산 경찰서 놈들은 한놈도 참가시키지 않고 현장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해 12월 21일에 서울 복심 법원에서는 우리 사건 종합 공판이 시작되여 우리 동무들이 다 출정하였습니다.

그때는 참 눈물겨운 참상이였습니다.

1942년 3월에 68 명의 동무들이 상소하여 갔는데 그간 1년 9개월 사이에 30 명이란 동지들이 참가하지 못하게 된 그것입니다.

악독한 일제놈들은 감옥 내에서도 전쟁비용을 얻어내느라고 식량을 절반으로 주렸으며 겨울에는 옷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무들은 혹심한 영양 부족과 추위로 인하여 옥사하였거나, 현재 병 중에 눕고 있는 동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법정에 나온 동무들도 대부분이 극도로 쇠약하여 조금만 밀어 놓아도 번져지는 동무가 많았습니다.

그 날 검사의 론고는 두 시간 이상 걸렸으며 구형은 함흥 재판소에서 언도한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변호사의 변론이 있고 최후 진술 시간에 내가 먼저 재판장의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 소경통 같은 검사놈아 일본 법률은 죄 없는 사람을 거짓말을 꾸며 억지로 죄인이라고 구형할 수 있는가?》

불의의 공격에 당황한 검사놈은 대뜸 《이놈이 무엇이 어째》하고 자기 앞에 있던 벼루'장을 들어서 내게 뿌리는 추태까지 부렸습니다.

그리고 보니 신성한 법정이라고 자랑하던 검사 자신이 법정 규률을 그와 같이 문란시켰으니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피소자의 심정을 그만하면 알만하니까 전체 피소자의 사정을 보아 말을 그만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재판장이 내게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격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계속 《정당한 재판이 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나갈 수 없다.》 하면서 사건 내용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며 일본 제국주의놈들의 죄악을 폭로하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함흥 재판소에서는 함부로 나의 언권을 금지할 수 있었지만 서울 복심 법원에서는 억제하지 못하였습니다.

12월 28일 서울 복심 법원 판결날입니다.

재판장은 우리 사건에 대한 설명을 길게 내린후 보천보 사건은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하여 조선 민족 해방동맹 사람들은 참가하지 않았다고 선포하고 언도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마 놈들은 현장 조사에서 우리가 주장한 대로 신통한 자료를 찾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천보 사건에서는 우리가 승리한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권 영벽, 리 제순 (리 동석), 지태환, 리 동걸 등 동지들은 중국 동북에서 빨찌산 운동에 참가하여 일본 군대를 많이 죽였다고 하면서 그냥 사형으로 결정하였으며 박 금철, 리 용술 (리 경봉), 서 인홍과 나는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조직을 지도하였다고 무기 징역으로 결정되였고 그외 동무들은 전부 5년 내지 9년씩 감형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건의 공판 투쟁의 일부입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는 우리들만이와 같은 투쟁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일제 통치 하의 36년 간은 계속 이런 투쟁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참 소름이 끼칠 지경입니다.

이것은 모두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의 원쑤놈들에 대한 항거이며 지금과 같은 훌륭한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어서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영원히 잘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와 같이 싸운 것입니다. (끝)

보고싶은 어머니에게

어머니! 자나 깨나 잊지 못할 어머니 지금은 죽음의 땅, 남조선 그 어느 곳에서 고생하며 계시나요.

어머니는 내가 공화국의 따뜻한 품 속에 안기여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 줄 모르시겠지요. 정말 생각하면 안타까와요. 편지 할래야 편지할 수도 없으니…그러나 나는 또 이 편지를 씁니나.

어머니 나는 어머니와 헤여지던 그때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자 누나를 지주집 애보기로 보내고 나는 고모네 집에 두고 어머니는 어느 집 식모로 가신다고 떠나셨지요. 그때 내가 발버둥치며 따라가겠다고 울었을 때 어머니는 가시다 돌아서군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지요.

어머니와 떨어진 그 날부터 나는 고모네 집에서 밤마다 어머니를 만나는 꿈을 꾸다 깨여나군 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앞이 캄캄하고 쓸쓸해서 《엄마! 엄마!》 소리내여 울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전쟁이 일어난 어느 날 잠에서 번쩍 눈을 떠보니까 별이 총총한 밤이였는데 군복을 입은 인민군 아저씨의 등에 업혀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랐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온 마을은 미군놈들의 폭격 속에 잠기고 고모네 집은 폭격에 날아 났다는 거애요. 정신을 잃고 쓰러진 나를 지나가던 인민군 아저씨가 업어다 줬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 아저씨를 몰라요. 그땐 어렸으니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른답니다. 그러나 몰라도 좋아요. 여기는 모든 사람이 모두 아버지고 어머니이니까요.

이렇게 공화국의 품에 안기게 된 나는 초등 학원에서 공부하게 됐어요. 일생 맛보지 못한 음식과 과자를 먹으며 폭신한 침대 우에서 잠자며 행복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보모 선생님은 친어머니처럼 나를 돌봐줍니다. 쌀쌀한 바람이 부는 날이면 감기 들가봐 밤에 몇 번씩 일어나서 차 던진 이불을 덮어 줍니다.

나는 이런 행복 속에서 앞으로 대학까지라도 마음껏 공부하게 됐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지금도 나를 생각할 때 발버둥치며 어머니를 따라 가겠다고 울던 철부지로 생각하군 하겠지요.

지금의 나를 어머니가 보신다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그때부터 8년이 지나 인제는 내가 열 네살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지금 붉은 넥타이를 맨 자랑찬 소년단원입니다. 동무들은 나를 소년단 열성자로 선거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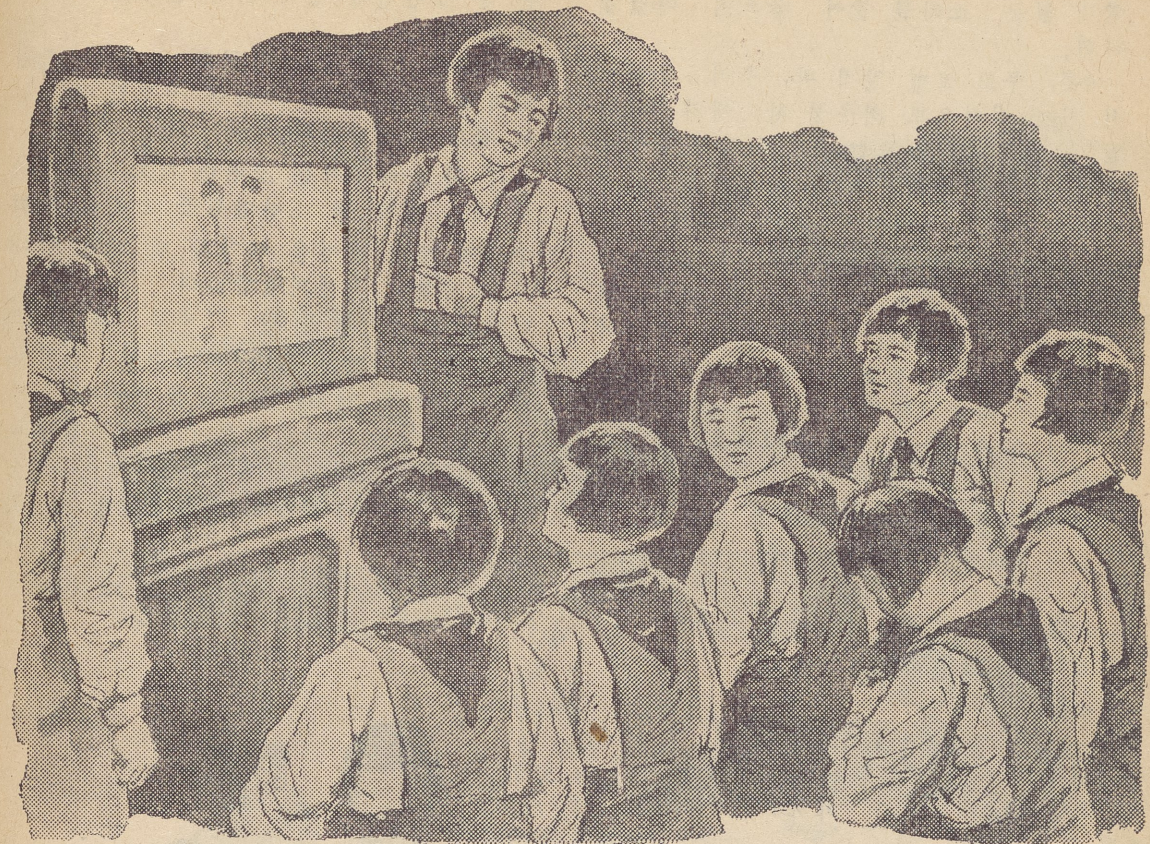
내가 지금 다만 걱정하는 것은 남조선 땅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계시면서도 내 소식 몰라 애타하실 어머니의 생각 뿐입니다.

어머니 이번 공화국 정부에서는 남조선에서 고생하는 실업자들과 고아들을 위하여 많은 쌀과 천과 물'고기와 신발을 보내게 됐어요. 나는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쁜지 모른답니다.

어머니도 이 따뜻한 손'길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는 공화국 북반부를 그리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속히 통일이 되여 어머니와 누나도 공화국의 품 안에 안긴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나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합니다.

어머니! 행복할 그 날까지 고통과 굶주림을 이겨내면서 꼭 살아 계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안녕히

—평북 의주 초등 학원 대 9분단에서—
아들 김 광 연 올림

분단의 훌륭한 활동

◇ 함흥 제 7중 학교 대 제 5분단에서 ◇

본사 기자 박 정 렬

그림 정 승 교

☆ 분단 모임을 가지기 전까지 ☆

어떤 일이나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해 나가야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말썽으로 그 열매에 해를 본다면 이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위원인 백 명자 동무가 우쭐해서 하나로 뭉친 열성자들과 동무들 사이에 쐐기를 박아 넣으려 합니다.

이는 아주 나쁜 일입니다.

연예 써클 책임자인 명자 동무는 내내 최우등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명자 동무는 학습에서 은근히 박 미자, 리 순자 동무들을 시기해 왔었습니다. 저만 최우등의 영예를 지니고 싶어서입니다.

이것도 나쁜 일입니다. 그러다가 그만 3학기 시험에서는 명자 동무 자신이 우등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명자 동무는 불평을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분단 사업이 어떻다느니 누구는 선생님의 귀여움을 받는다느니

쓸데 없는 소리를 늘여 놓으며 다녔습니다.

《흥, 두고 보면 알지 뭐, 우리 분단에서 자기 실력으로 최우등 한 애가 있는 줄 알어.》저도 모르는 사이에 명자 동무는 분단 동무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루빠를 지여 가지고 밀려 다니며 조선옷차림으로 영화관에 드나드는 황 춘자, 최 회자, 전 복순 동무들을 자기 주위에 끌어 당기여 잘못을 제 때에 충고해 주는 열성자들을 비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리 청자 동무에게도 있었습니다.

청자 동무는 노래와 무용을 잘해서 동무들이 《꼬마 배우》라고 불렀습니다.

언제나 그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며 예술인들을 몹시 부러워 했습니다.

그는 동무를 친해도 곱게 생기고 무용을 잘하며 좋은 옷을 입은 동무만을 가까이 합니다.

어떤 때는 당장 학교를 그만 두고 무용 학교에 간다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싸다니면서 멋만 부리기도 합니다.

누가 길을 물어도 아래우를 훑어 보고야 가리켜 드리며 어렵고 힘든 일에서는 옷만 싹싹 터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새 시대에 자라나는 소년단원들에게 더는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인 것입니다.

이처럼 분단에는 차츰 진실치 못한 우정 관계가 싹트기 시작했고 주 명자 동무처럼 공원의 꽃을 꺾으며 어른들의 말에 반말로 대답하

는 등 소년단원 답지 못한 품성들이 나타났습니다.

때마침 민청 중앙 위원회 제 6차 전원회의에 참가하셨던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이 돌아 오셨습니다.

이 학교 대에서는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의 지도 밑에 곧 소년단원들 속에서 사회주의적 도덕 품성을 배양할 데 대한 이야기 모임들이 진행되였습니다. 이날 소년단원들은 천리마를 탄 기세로 질풍과도 같이 달려 나가고 있는 사회주의 건설자들인 아버지, 형님, 누나들을 따라서 우리 소년단원들도 믿음직하게 자라나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래일의 씩씩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답게 학습

도우며 일하는 형님, 누나들의 아름다운 연구실에서 가진 모임을 통해 너무도 많

모기는 우리에게 마라리아와 일본 뇌염을 전염시키는 무서운 벌레다.

모기는 여름부터 가을까지의 기간에 주로 어둠을 타서 활동하면서 사람이나 가축들의 피를 빨아 먹는다. 만일 환자의 피를 빨아 먹은 모기가 다시 건강한 사람을 물 때 무서운 병원체들은 건강한 사람의 몸에 옮겨져서 병을 일으킨다.

이렇게 모기에 의하여 전염되는 무서운 일본 뇌염이 오늘 남반부 각지에 성행하고 있다. 벌써 남반부에는 5천여명을 넘는 일본뇌염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뇌염을 철저히 예방하며 한사람의 환자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기 박멸에 다같이 힘써 나서야 한다.

모기를 어떻게 박멸할 것인가?

모기는 논판이나 물구덩이 하수도 등 물이 고여 있는 장소에 알을 낳는데 이 알에서 곤두 벌레가 생기고 이것이 모기로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모기의 발육장소와 유충들을 없애야 한다.

즉 불결한 물구덩이 폭탄 구덩이를 메우거나 또는 그 곳에 고인 물에 석유를 뿌려 곤두벌레가 생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쓰지 않는 빈독, 항아리 등은 엎어두며 또한 하수도, 도랑 등은 항상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하며 잡초는 모조리 뽑고 자주 청소해야 한다.

모기가 눈에 띠이면 제때에 파리채로 때려 잡으며 파리 약을 뿌려 잡아야 한다.

방안 벽에는 디디티나 헥사크로란 등 가루를 뿌리거나 물에 타서 바르는 것도 좋다. 그리고 창문에는 가제 천 같은 것을 쳐서 모기가 들어 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전체 소년단원들은 어른들을 도와 지금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되는 모기 박멸 운동에 다같이 힘써 나서자!

파리도 우리에게 식중독, 적리, 장티브스 기타 여러가지 전염병을 전염시키는 무서운 원쑤이다.

파리는 주로 변소나 퇴비 등 항상 더럽고 냄세 나는 곳에서 살면서 썩고 불결한 것들을 먹으며 산다. 이렇게 생활하는 파리는 여러 곳을 돌아 가면서 병균을 묻쳐다 여기저기 퍼뜨린다.

파리를 어떻게 박멸할 것인가?

파리는 발육과 번식이 매우 빠르다. 한마리의 파리는 평균 40일 동안 살면서 그 동안 6～10회나 알을 깐다.

한번에 까는 알 수는 보통 100여개인데 알로부터 파리로 될 때까지는 10일 내외이다. 이렇게 자주 자손들을 번식시킴으로 그 수는 실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번식한다.

그러므로 파리를 박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파리를 쳐 잡기보다 몇백 몇천으로 집결된 구데기에 끓는 물을 붓거나 또는 생석회를 뿌리면 한꺼번에 수 많은 것을 없앨수 있다. 그러면서 파리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변소나 오물장 같은 더러운 장소를 항상 깨끗이 청소하며 개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미 생겨난 파리를 박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방안에 든 파리는 밖으로 내 쫓지 말고 방안에서 파리채와 포충망으로 잡거나 유리통을 사용하여 잡아내는 것이 좋다. 이 밖에 파리약을 뿌려 잡거나 야간에 마취 박멸법으로 파리를 전멸시키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우리들은 오늘날까지 숫한 파리들을 잡았으며 또 그의 근원들도 적지 않게 박멸해 왔다. 그러나 이 일은 그렇게 간단히 끝나는 일이 아니다. 앞으로도 끊임 없이 우리들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하여 파리 박멸에 힘써야 한다.

잡지 《소년단》 1958년 10호 부록

민청 출판사

꽃을 꺾으며 어
른들의 말에 반말로 대답하

도우며 일하는 형님, 누나들의 아름다운 연구실에서 가진 모임을 통해 너무도 많

른들의 말에 반말로 대답하

하며 행동하며 일하는 새 세대로 되여야 한다고들 말했습니다. 그 후 분단 열성자들은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우선 백 명자 동무와 리 청자 동무들에게 진실한 우정과 동지애를 가르쳐 주며 그루빠를 지여 다니는 몇몇 동무들에게는 집단을 사랑할 줄 알게 일깨워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순자 동무의 제의에 의하여 《분단의 거울》이라는 분단 모임을 가지자고 일치하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분단 모임을 앞두고☆

《분단의 거울》이라는 분단 모임을 앞둔 20 여 일 동안은 몹시 분주했습니다.

분단 위원회에서는《친선》이라는 벽보를 새로 발간하고 집단과 동지애에 대한 지상 토론을 가졌습니다.

《진실한 우정이란?》

《내것과 우리의 것.》

《웃 어른들을 왜 존경해야 되는가?》등 이틀에 한번씩 벽보 기사들을 갈아 붙여 동무들의 흥미를 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 토요일마다 6차 전원 회의 결정서에 의한 학습을 통하여 소년단원들에게 사회주의 도덕이란 무엇인가를 인식시켰습니다.

한편 중국 아동 예술 영화 《오누이》를 감상했으며 읽은 책 이야기 모임, 반 모임 등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2반에서는 웃 어른들 앞에서 버릇없이 놀며 정직하지 못한 주 명자 동무를 위해 부모들을 모시고 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백 명자네 반에서는 김 일성 원수 혁명 활동 연구실에서 《혁명 투사들처럼 살며 배우며 일하자!》라는 반 모임을 가졌고 리 청자 동무네 반에서는 소설《숙자의 생각》에 대한 읽은 책 이야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또 어떤 반에서는 건설장과 제사 공장 등을 견학하고 눈부신 투쟁 속에서 서로 도우며 일하는 형님, 누나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분단 위원회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야 할 동무들에게는 각각 해당한 책들을 읽고 감상할 것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림을 잘 그리는 김 춘미, 리 순자 동무들에 의해 그림극도 준비했습니다.

이렇듯 다채로운 사업 조직은 분단 동무들로 하여금 분단 모임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분단 모임의 날☆

《분단의 거울》이라는 모임은 그림극으로부터 시작되였습니다.

그림극에는 넥타이를 매지 않고 다니는 동무와 옷차림을 단정히 한 동무를 나타낸 그림, 그리고 어머니와 싸우며 동생을 마구 때리는 동무와 어머니를 존경하며 일'손을 돕는 동무를 보여 주는 그림도 있었습니다.

백 명자 동무처럼 뒤'공론을 하고 다니는 그림, 주 명자 동무처럼 아버지가 밥상을 받고 계시는 데도 누워 있는 그림도 있었습니다.

그림극은 참 흥미를 끌었습니다.

처음에 분단 위원장인 한 정자 동무가 분단 동무들 속에서 사회주의 도덕 품성에서 나타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앞날의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로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아직도 소년단원답지 못한 행동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천리마로 내달리는 아버지, 오빠, 언니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겠습니다. 그럼 저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의 생활에서 꼭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분단 위원장 동무의 이야기에 뒤'이어 많은 동무들의 이야기가 계속되였습니다.

《그림극에서 보여 준 것처럼 나는 동무를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나는 며칠전에 우리 반에서 김 일성 원수 혁명 활동 연구실에서 가진 모임을 통해 너무도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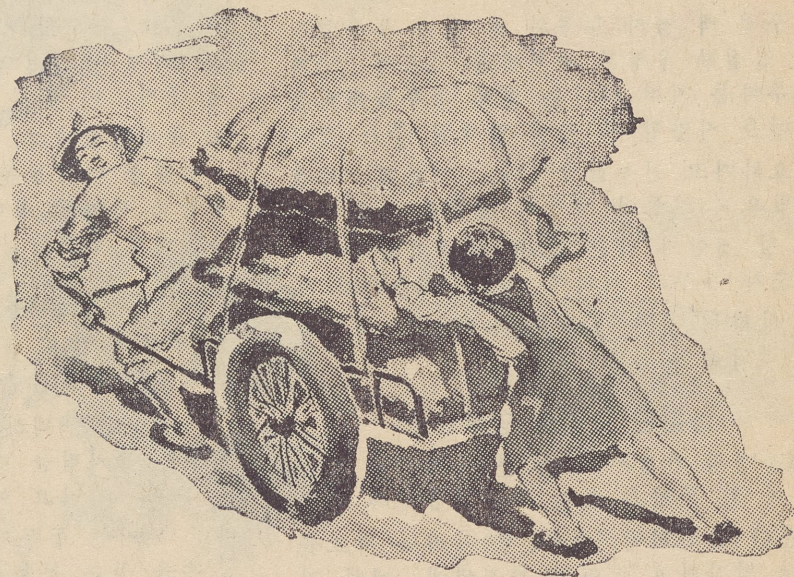
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백 명자 동무는 이렇게 말하면서 항일 유격투사들이 동지들을 어떻게 사랑하였는 가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리 청자 동무는 우쭐해서 동무들을 깔보며 사치를 좋아하고 낯가림을 하는 따위는 지주, 자본가들이 사는 사회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동무들을 진실하게 사랑하며 어른들을 존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부만 잘해서도 훌륭한 일'군으로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무와 집단을 사랑할 줄 모르며 부모와 웃 어른들을 존경할 줄 모르는 동무가 어떻게 조국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대위원장인 박 미자 동무의 이야기에 감동되여 주 명자, 로 함일, 전 복순, 한 인숙 동무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교통 정리원 아저씨들을 도와《교마 선전원》의 활동을 훌륭히 한 리순자 동무와 길'가에서 얻은 공민증과 신분 증명서, 저금 통장을 임자에게 찾아 준 정 금숙 동무를 표창했습니다. 모임을 끝맺으면서 분단 지도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 모임 보다도 오늘 모임은 훌륭했습니다. 많은 동무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고 새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처럼 서로 돕고 사랑하며 마음만 합한다면 못해 낼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우리 분단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적지않습니다. 뒤떨어진 분단을 이끌고 나가며 언제나 모범이 되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곧 사회주의 사회에서 자라 나는 소년단원의 품성일 것입니다.》

☆분단은 활동한다. ☆

분단 모임이 있은 이튿날부터 교실 뒤'벽에는 《분단의 거울》이라는 빨간 함이 걸리게 되였습니다. 날마다 그 통에는 분단 동무들의 아름다운 행동을 적은 쪽지가 가득 차군 합니다.

어제도 집으로 돌아 가던 길에 리 청자 동무가 톱밥을 실은 니아까를 힘겨웁게 끌고 가는 할아버지를 도와 드린 이야기를 비롯하여 수십가지의 이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직장 상점을 가리켜 드린 일, 우는 애의 집을 찾아 준 일 등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언제나, 어데서나 소년단원답게 행동하라.》

벽보《친선》의 웃머리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거리와 공원에서, 학교와 마을에서 언제나 소년단원의 영예를 간직한 이들에게는 자랑만 늘어 가고 있을 뿐입니다.

—동화시—

두 친구

원 석 파

물은 말했네
—나는 전기를 일쿠고
기차를 움직이고…

불은 대'구했네
—나는 쇠'물을 녹이고
밤을 환히 밝게 하고…

물은 목소리를 높였네
—곡식에 단 비를 주고
뗴'목을 나르니
내 힘이 제일이야.

불도 지지 않았네,
—음식을 익히고
온돌 난로 다 덥히니
내 힘이 제일이야.

—내가 제일이야
—내가 제일이야

물과 불은 주먹을 흔들며
얼굴이 붉그락 푸르락
승강내기 하였다네,

듣고 있던 해'님은 웃으시면서
—자네들 말이
다 그럴듯 하네

—그러나 물 동무
자네는 불 없이는 힘을 못 쓰네
자네가 기차를 움직이지만
불이 자네를 끓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물은 깊은 생각에 잠겼네,

—불 동무
자네도 물 없이는 힘을 못 쓰네
자네가 전등으로 어둠을 밝히지만
물이 전기를 일궈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불도 깊은 생각에 잠겼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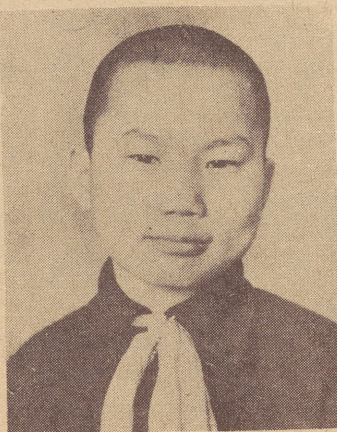
해'님은 부드럽게 타일렀네
—그러니 듣게 두 친구
서로서로 도와야
새롭고 더 큰 힘이 생긴다네

나는 목축 기사가 되렵니다

몽고 조선인 학교
장 연길

형제의 나라 몽고 인민들의 따뜻한 품 속에 안겨 나는 7년째 행복하게 배우며 자라고 있습니다.

몽고는 목축업으로 세계에서 이름이 높은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넓고 넓은 초원에 흰 구름 떼처럼 움직이는 양 떼들을 볼 때마다 나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늘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푸른 들과 언덕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목축들을 눈 앞에 그려 봅니다.

나는 금년 7월에 조국에서 오신 휴양단 아저씨들 가운데서 평강 국영 농장의 양돈공 김 태기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김 태기 아저씨는 한 해 동안에 140 키로그람이나 되는 돼지를 200 여 마리를 길러낸다고 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나는 이 아저씨에게 나도 커서 꼭 아저씨처럼 목축 기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이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나는 지금 몽고에서 발간한 목축에 대한 책들과 이 곳의 훌륭한 목축 일'군들의 경험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나는 좋은 이 곳의 기술을 열심히 배우면서 실험 실습에도 부지런히 참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의 이 나의 결심이 래일 우리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될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의 나의 모든 학습은 오직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깊이 명심하고 있습니다.

나는 방직공이 되렵니다

강원도 원산 제 5중
학교 대
16분단 정 민자

어제 없던 천이 오늘 있고 오늘 없던 새 천이 또 나오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값이 싸지고 천이 좋아지는 것을 나는 매일 봅니다.

나는 생각하군 합니다. 《내 손으로 천을 짜서 근로자 아저씨들에게 입혀 봤으면…》

나는 금년 4월 만경대에서 있은 평남도 소년단 련합 모임에 강원도 대표 63 명 중의 한 사람으로 참가했다가 평양 방직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베 짜는 것 밖에 보지 못하던 나에게, 특히 방직공이 되려고 큰 희망을 품고 있는 나에게 평양 방직 공장은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6만 152 추에 2,170 대의 직기를 갖춘 방직 공장을 보고 나는 얼마나 가슴을 울렁거렸는지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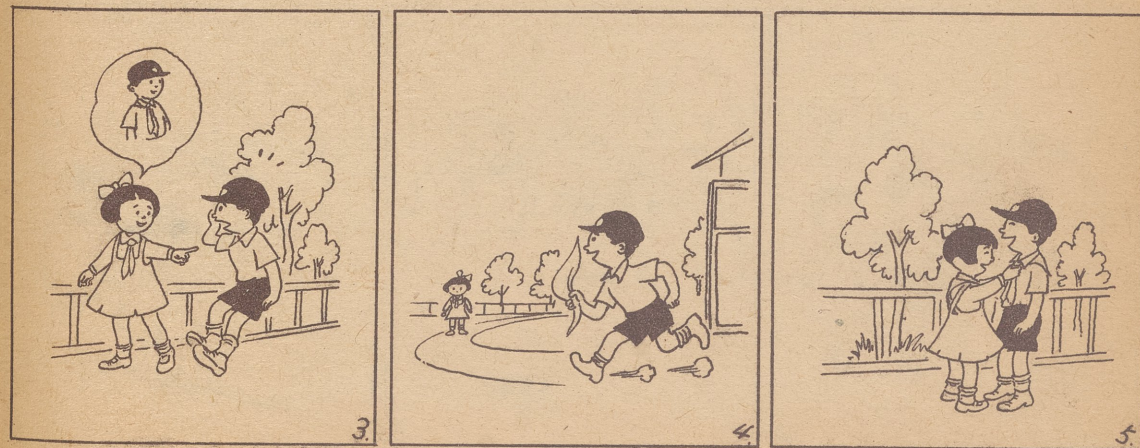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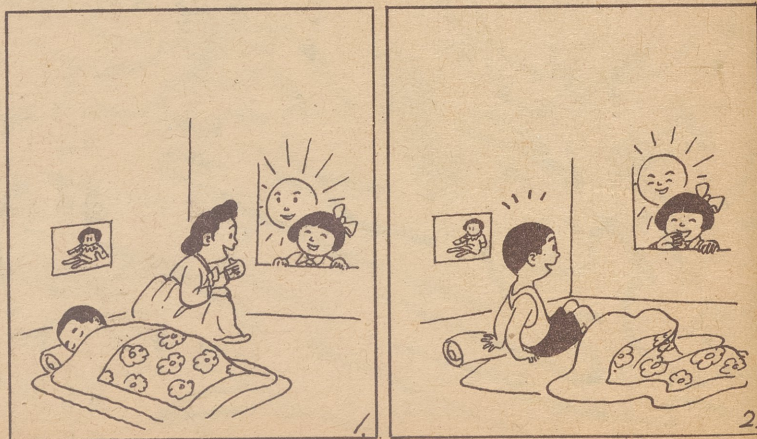
나는 여기서 로력 영웅 주 병선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 나도 방직공이 되려고 하는데 될 수 있을가요?》 나는 영웅 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영웅 언니는 《될 수 있구 말구, 마음 먹은 일이면 꼭 해야 한다. 안 될 일이 어디 있겠니, 나도 기술을 배워 가지고 태여나지는 않았으니까》 했습니다.

나는 많은 방직공 언니들에게서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2 대의 직기를 맡아 보는 박 금옥 언니가 끊어진 실을 한 번 잇는 데 30 초 걸리던 것을 3 초 단축해서 27 초에 해 내겠다고 결의한 이야기, 또 다기대 운동에서 35 대공 주 병선 로력 영웅 언니를 따라 가기 위하여 일이 끝나면 공부를 하고 기술을 배우고 전습을 해서 28 대공이던 정 태숙 언니가 며칠 후 30 대공이 되였다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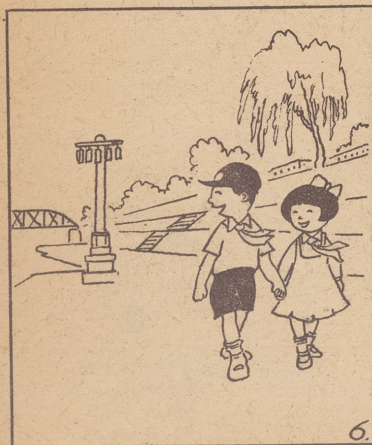
나는 앞날의 훌륭한 방직공이 되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인민 학교 때부터 내내 최우등으로 공부해 왔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배워 내 지식과 젊은 힘을 사회주의 조국에 바쳐 일할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 소년단원에 대한 이야기

본사 기자 최 옥 선

그림 박 상 락

◇ 평북 의주 초등 학원 대 9 분단에서 ◇

룡찬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미군놈들의 폭격에 그만 돌아 가셨다. 룡찬이는 불쌍한 고아로 되였다. 이런 그는 이웃집에서 외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였다. 이웃집 어머니는 그를 부모 없는 아이라고 하면서 그저 사랑만 해 주었다. 그의 응석도 분별 없이 받아 주었고 그의 잘못을 보고도 그를 꾸짖지 않았다. 룡찬이는 좋지 않은 아이들과 장'거리로 밀려 다녔다. 밀려 다니면서 그는 함부로 어린 아이들의 손에 쥔 물품을 덮치였고 빼앗기도 했다. 그 다음부터는 장사'집 과일을 훔쳐 내기도 했다. 그는 밤새 밀려 다니다는 아무 데나 푹 쓰러져 자기가 일수였다.

그는 이웃 어머니의 사랑을 순진하게 받아 들이려 하지 않았다. 이웃 어머니와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도 극력 피했다. 몇번이나 학교에 갈 것을 이야기했어도 고개를 저었다. 모두가 자기를 부모 없는 아이라고 업수이 여기는 줄로만 알았다. 또 따뜻한 말을 들을 때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 그러는거라고만 생각했다. 그의 하루하루는 헛되이 흘러 갔다. 아니 그의 하루하루는 그를 더욱 더 어지러운 길에로 끌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의 일이다. 그는 어느 공원 벤취 우에서 자고 있었다.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벤취 우에 쪼구리고 누운 그의 모습은 애처러워 보였다. 그런데 그의 곁으로 누가 다가 섰다. 다가 선 분은 자기의 웃저고리를 벗어 그를 덮어 주면서 가볍게 그를 흔들어 깨웠다. 그는 내무원 아저씨였다. 그 내무원 아저씨는 이 날 밤에 룡찬이의 처지와 그가 걸어 온 길을 죄다 들었다.

룡찬이의 학원 생활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였다.

학원에 온 첫날에 그는 낯익은 아이들의 얼굴들을 보았다. 거리에서 같이 밀려 다니던 아이들도, 하찮은 일로 싸우던 아이들도 있었다. 분단에서는 새로 들어 온 그를 특별히 도와주며 빨리 소년단원으로 되게 해야겠다고 약속했다.

분단 열성자들은 그와 친숙하기 위해 애썼다. 영화 감상 때도 그와 같이 앉았다. 야회 때도 그와 다정하게 춤을 추었다. 그러나 어느 날 분단 열성자들을 실망케 하는 말이 그의 입에서 흘러 나왔다.

분단 열성자들이 학원의 규률에 대하여 말했을 때 그는 너희들이나 잘 지키려므나, 너희들이 선생이냐? 하고는 아니꼽다는듯이 코웃음까지 치는 것이였다.

룡찬이는 열성자들을 멀리 하면서 차츰 제멋 대로의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취침 시간이면 있는 목청을 다해서 허튼 노래를 불러 동무들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식사 시간에도 어린 동무들의 찬'그릇에서 맛 있는 것은 모조리 걷어다 자기 앞에 쌓아 놓고 먹다 남겨 버리군 했다. 보모 선생에게 일러서 욕을 먹게 되면 그 후엔 일러바친 아이를 무섭게 때려 주군 했다. 하루는 간식을 나누는데 와락 덮치여 남의 몇 곱을 가졌다.

《난 큰 사람이니 많이 먹어야 할게 아니야!》하고 벌죽벌죽 웃기까지 하였다.

그 이튿날은 학교에도 가지 않고 뺑소니쳐 산으로 올라 갔다. 그는 전날에 덮치여 두었던 간식을 먹으며 하루 종일 새잡이를 했다. 분단 동무들과 선생님은 얼마나 근심했는지 모른다. 저녁 때가 되여서야 새 몇 마리와 살구를 주머니에 가득따 가지고 왔다. 그는 이러한 자신을 조금도 부끄러워 하지 않았다.

이 때 할머니 한 분이 들어 와 룡찬이를 붙들고 말씀하시였다.

《아니 그게 무슨 짓이냐, 과일을 먹지도 않고 다 따 버리구 나무를 꺾어 놓는 법

이 어데 있담, 보모 선생에게 자기 잘못을 다 말해라》하고 꾸짖었다.

잠'자리에 누운 롱찬이는 《오늘 저녁 보모 선생이 안 계셨기 다행이지…돌아오시면 어떻게 한다?… 모임이 열리면 내 이야기만 하겠지… 어떻거면 좋을가》 하는 불안에 싸여 있었다.

그의 마음 속에 동무들의 말 소리가 들려 온다.

《넌 나라에 큰 죄를 지구 있어 고마운 줄 모르구.》

《넌 우리 분단의 수치야 그러다간 늙을 때까지두 소년단원이 못 되겠다야.》 밤은 깊어만 갔다. 모든 동무들은 쌔근쌔근 잠자고 있었다. 롱찬이는 마음 속으로 중얼거렸다.

《학원을 떠나야겠다》

×

이튿날 아침 분단 동무들은 모두 식탁에 둘러 앉았다. 그러나 롱찬이의 자리만은 텡 비여 있었다. 아이들의 눈이 모두 롱찬이의 자리로 쏠리였다.

《…?》

롱찬이는 침실에도, 교실에도 없었다.

이윽고 식사를 끝낸 분단 동무들 가운데서 누구는 《롱찬인 어제랑 배가 아프다고 그랬는데…어데로 갔을가?》 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산에 또 간게지 뭐 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롱찬이는 돌아 오지 않았다. 분단 열성자들은 먼저 보모 선생님을 찾아 가 이야기했다.

이리하여 보모 선생님이랑 분단 열성자들이랑 롱찬이를 찾아 떠났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 가며 산을 넘었다. 어느덧 해도 서 쪽 산 뒤로 넘었다. 보모와 분단 열성자들은 소리를 맞춰 《롱찬아! 롱찬아!》하고 안타까이 불렀다. 보모 선생은 분단 열성자들 모르게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치였다. 분단 열성자들도 보모 선생님 모르게 젖은 눈'자욱을 주먹으로 문질렀다.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다. 먼 하늘을 쳐다 보면서 보모 선생님은 혼자'말로 《롱찬이가 점심이랑 저녁이랑 먹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분단 열성자들도 저희들끼리 《우리가 잘못했어! 롱찬일 좀 더 따뜻하게 대할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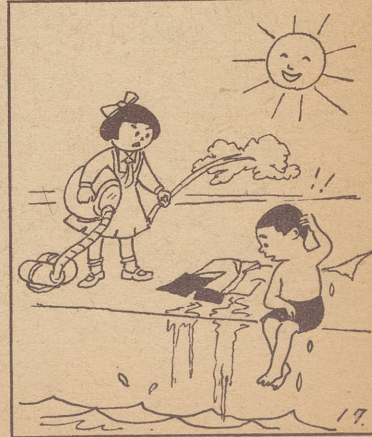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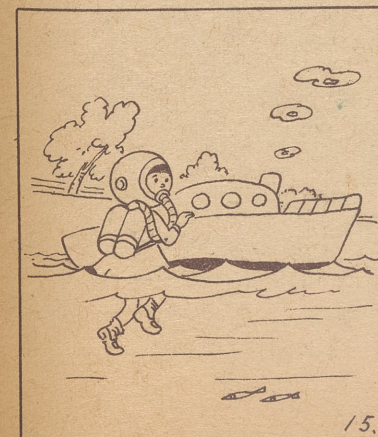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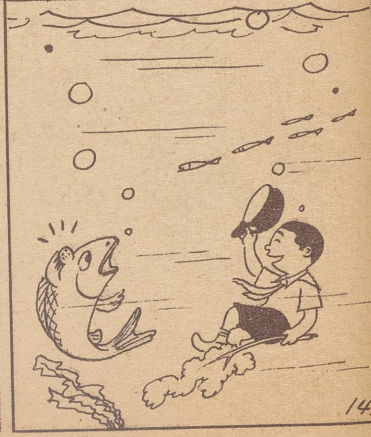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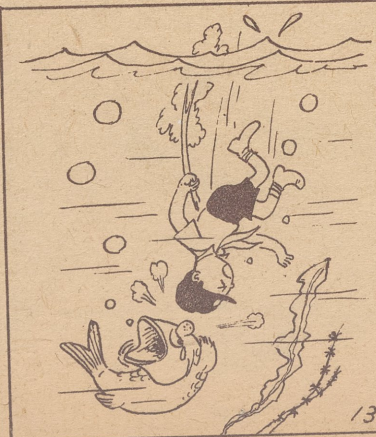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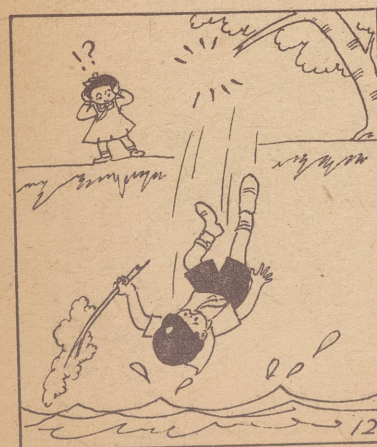
《응 우리가 잘못했어!》 한다.

독자 동무들! 놀래지들 말라! 이 말 소리를 롱찬이는 지금 듣고 있는 것이다. 그는 종일토록 헤매이다 지금 이 비탈'길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다가 저만치에서 보모 선생님이랑 분단 열성자들이랑 오는 것을 보고 풀숲에 숨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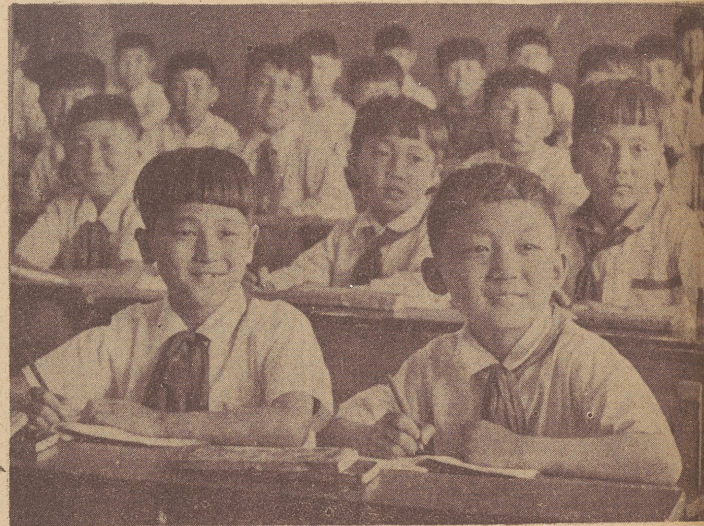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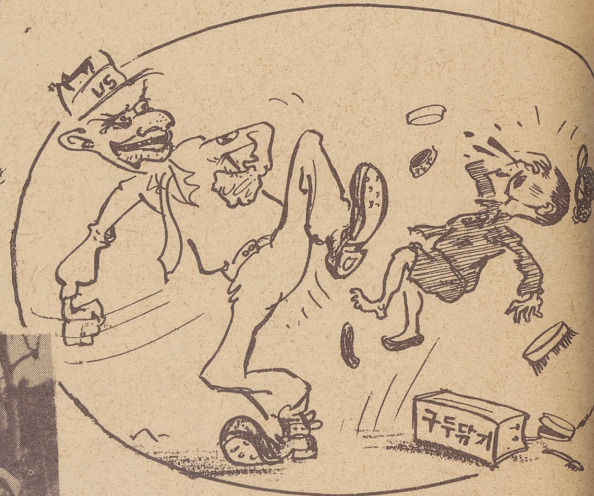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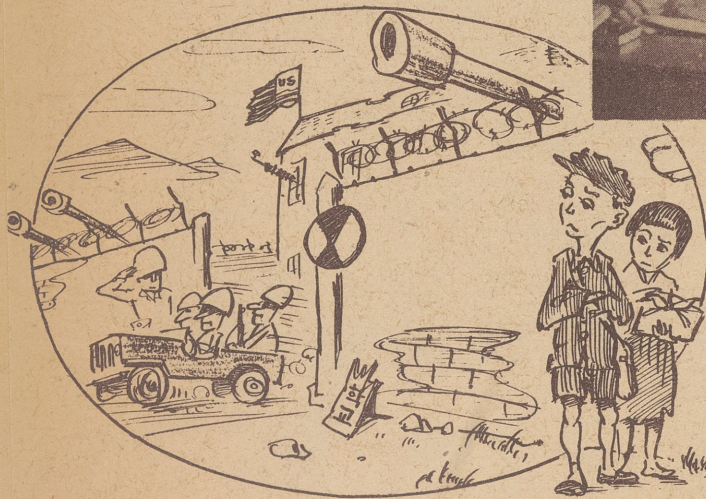
롱찬이는 숲 속에서 보모 선생님과 분단 열성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자기의 가슴을 두 손으로 꼭 껴안고 울었다. 두 눈에서는 뜨겁고 뜨거운 눈물이 끝없이 흘러 내렸다

그는 와락 숲 속에서 길'가로 달려 나왔다. 그리고는 선생님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어머니!》하고 소리내여 흐느껴 울었다.

분단 열성자들은 그에게서 참되고 아름다운 눈물을 보았다.

밤'길을 걸어 학원으로 돌아 오면서 롱찬이는 정말 가슴 속 깊이 조국의 품은 위대한 어머니의 품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보모 선생님과 분단 열성자들은 한없이 기뻤다.

서로 다른 두 세상

사진을 보십시요. 공화국 북반부 소년들은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러나 남반부 소년들은 미제와 리 승만 도배의 발'굽 밑에서 불행하기만 합니다.

그림을 보십시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날 한시에 해방된 한 나라에서 이런 두 가지 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반부 소년들은 3층, 4층의 학교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을때 남반부 소년들은 학교를 빼앗기고 거리거리를 헤매이고 있다.

여름이면 북반부 소년들에게는 즐거운 야영이 벌어진다. 그러나 남반부 소년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이렇게 구두 닦기도 해야 하니까…

《야! 이쁘구나.》 동생도 손'벽치며 좋아 한다. 《정말 신통히도 맞구나.》 어머니도 기뻐한다. 새 옷을 입은 그야 더 말할 수 없이 즐겁다.

그러나 남반부 소년들에게 언제 이런 좋은 일이 있었겠는가. 갈기갈기 찢어진 천 쪼각으로 몸을 가리우고 겨울도 나야 하니까…

《어머니! 저것 봐요. 어제 없던 집이 또 새로 생겼어요.》

《응, 정말 그렇구나, 우리의 생활도 저 집들이 새로 생기는 것처럼 날마다 더 행복해만 간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 속에서 고이 자라며 날마다 늘어 가는 행복을 노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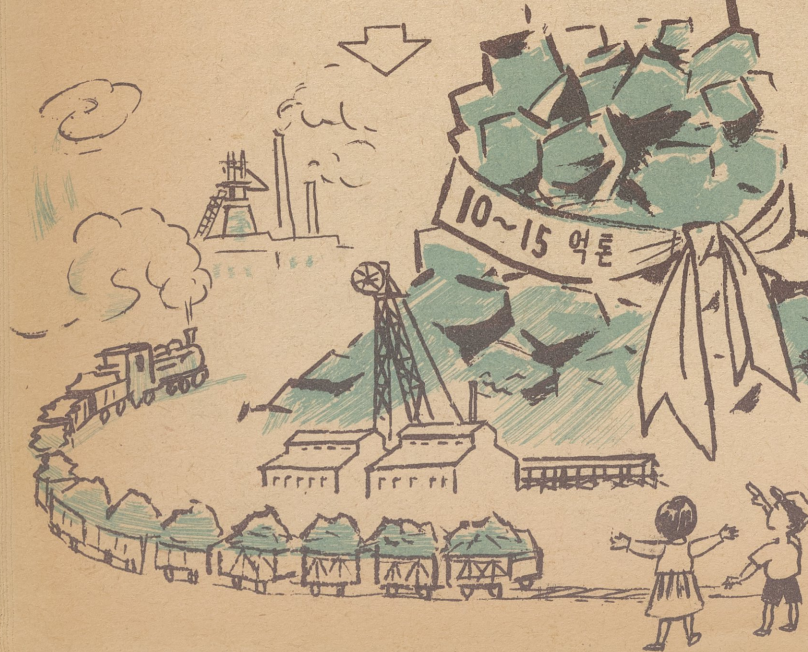
이쪽 그림을 보라! 굶어 죽은 어머니 옆에서 애처로이 우는 소년을. 이것은 남조선에서 흔히 보는 일이다.

울창한 나무와 우거진 수풀과 험한 돌바우로 꽉 들어 찬 이 드메 산'골이 어딘지 아세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천리마의 기세로 힘 있게 달리는 우리 나라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들이 매일 같이 이 곳으로 달려 오고 있습니다.

《평남 청년 탄전》 바로 여기서도 위대한 개발 사업이 시작되였습니다.

《10—15억 톤의 석탄》

이 《평남 청년 탄전》에 얼마나한 석탄이 파묻혀 있는가구요? 놀라지들 마세요. 우리 나라 땅 속에 파묻혀 있는 석탄의 절반인 10~15억 톤이나 되는 많은 석탄이 파묻혀 있습니다.

이것을 한 해에 1,000만 톤 씩 캐더라도 100~150년 동안 캐야 합니다.

《웅장한 설계도》

이것은 《평남 청년 탄전》의 웅장한 설계도입니다. 열 개의 탄광 지구가 있습니다. 이 탄광들을 련결하는 길이 400 리의 큰 지하 전차갱도가 생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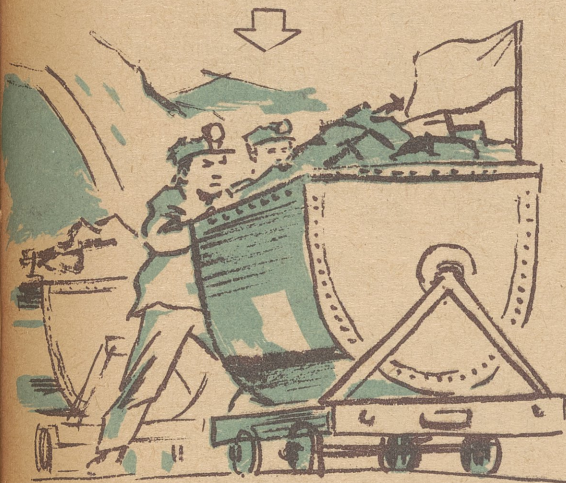
《당의 부름 받들고》

나는 이 곳에서 많은 초중 졸업생들을 만났습니다. 형님들은 한결같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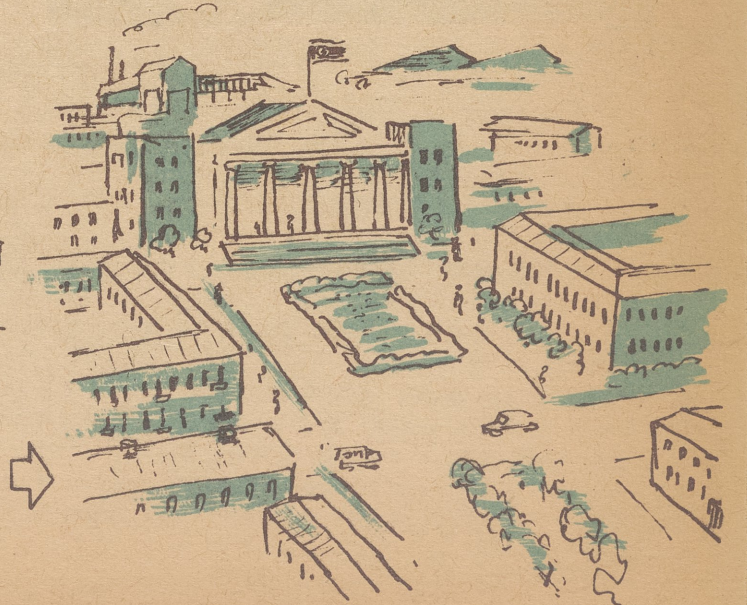
《당과 수령은 청년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돌격대가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천리마를 타고 드높은 기세로 사회주의를 향하여 달리고 있는 이때 우리는 피끓는 청춘을 당에 바쳐 싸우려고 뛰여 왔습니다.》

《김책 소년호》

작년 11월 김책시 6중 소년단원들로부터 《친선의 축기》와 함께 《이 친선의 축기를 어느 한 개의 탄차에 꽂고 〈김책 소년호〉라고 붙여 주십시요.》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이 따뜻한 마음을 받아 들인 개발자 형님들은 김 정걸, 고 린상 형님의 담당한 적재로다에 《김책 소년호》라고 이름을 달았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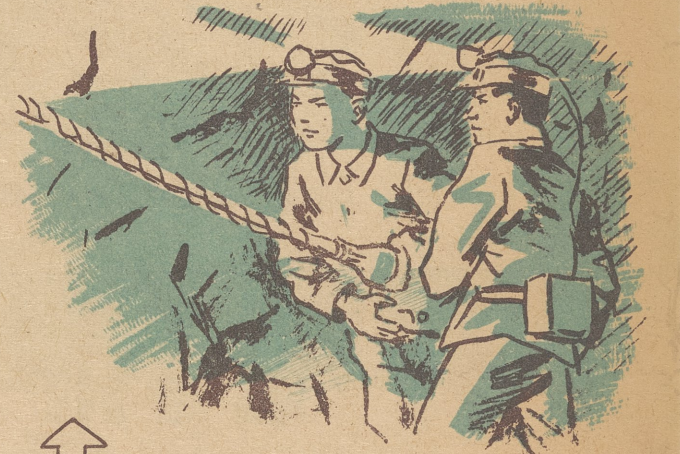
지난 6월 30일까지 이 《김책 소년호》는 5만 9천 2백 톤의 버럭을 아무 사고 없이 친선의 기'발을 날리며 실어 냈습니다.

《꿈 아닌 일》

산들과 바우와 나무들은 어디로 날아나고 이런 문화적인 도시가 생겼습니까.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평남 청년 탄전》은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땅 속에서는 전차가 달리고 탄광들은 모두 새 기계로 장비되여 1963년 전으로 한 해에 350만 톤의 석탄을 캐냅니다.

《기적을 낳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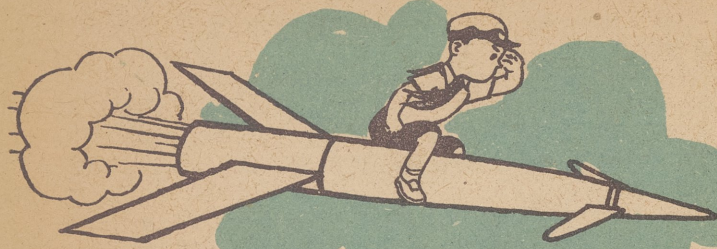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신기한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작년 7월에 천막을 치고 첫 개발을 시작한 송남에서 청년들이 지금 기적을 낳고 있습니다. 억수로 비가 퍼붓는 가운데서도 두달 동안 해야 할 전기 끌어들이는 공사를 보름 동안 했으며 목재와 벽돌을 쓰지 않고 송남'골에 많은 돌로 멋진 집을 지였습니다.

지난 6월 말까지 1,800 평방 메터의 웅장한 2층 아빠트와 90 여 세대의 단층 주택과 503석을 가진 구락부와 식당, 목욕탕을 지였고 10 리나 되는 철도를 놓고 15 메터 폭을 가진 길이 10 리 되는 큰 도로도 뻗고 있습니다.

《못할 일 없다》

당이 가리키는 길에서 청년들은 어떤 일이건 못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송남 청년 탄광에서 봐도 정말 그렇습니다. 253 개 기업소에서 87가지의 일을 하던 민청 형님들이 여기 왔는데 어제까지 직포공이던 신 홍보 형님이 석달 동안에 6급 착암수가 되듯이 모두 그렇게 기술을 배워 한 달에 107 메터의 고속도 굴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1,300 메터의 전차 갱도를 뚫었다니 어디 청년들 앞에 못할 일이 있겠어요!

로케트려행 (2)

나의 중근동 지역 려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려행 기간 끊임 없이 아주 흥미 있는 일과 아주 주요한 사태들을 목격하면서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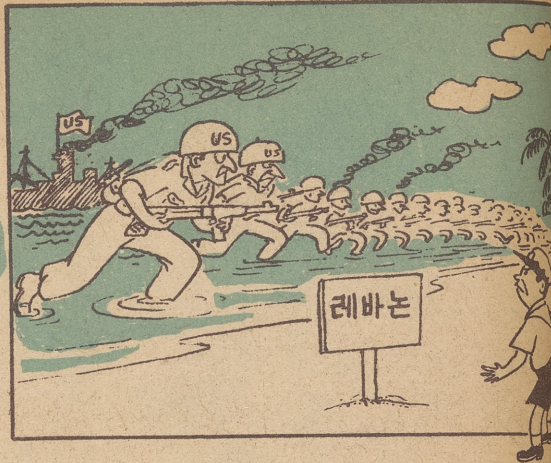
(1) 7월 14일 나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세요. 이곳 파이살 왕궁에 갑자기 무장한 군대들과 인민들이 몰려 들어 가더니 왕을 끌어 내고 그의 졸개들을 보기좋게 처단하고 있지 않겠어요.

나는 총을 멘 한 로동자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어찌된 일이예요?》

《저놈들은 인민들을 못살게 굴던 미제의 앞잡이들이였단다.》

이날 인민 폭동군은 드디여 미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인민들을 못살게 굴던 파이살 왕조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이라크 공화국을 창건하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다시금 또 느꼈습니다. (지구상에서 미영 제국주의자들의 운명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2) 이라크 정변이 있은 다음날 나의 로케트는 벌써 나를 지중해 연안에 있는 레바논에 실어다 주었습니다.

이 곳 인민 항쟁군들은 미제의 앞잡이인 《샤문 대통령》을 반대하여 참말로 잘 싸워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장한 미국 해병대 5,000 여 명이 레바논에 기여 들었습니다.

놈들은 아마도 조선 인민 앞에서 단단히 혼난 것을 벌써 잊었나 봅니다. 놈들은 꼭 중근동 인민들의 주먹 앞에서도 굴복되고 말 것입니다.

(3) 7월 21일에는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여기서 땅크와 장갑차들이 늘어선 무시무시한 경계망을 뚫고 용감히 삐라를 뿌리며 돌아가는 소년을 만났습니다.

《애 넌 왜 이런 위험한 곳을 뛰여 돌아가니?》

《우리 나라엔 영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지난 17일 또다시 기여 올랐단다. 나는 놈들과 끝까지 싸울 것을 결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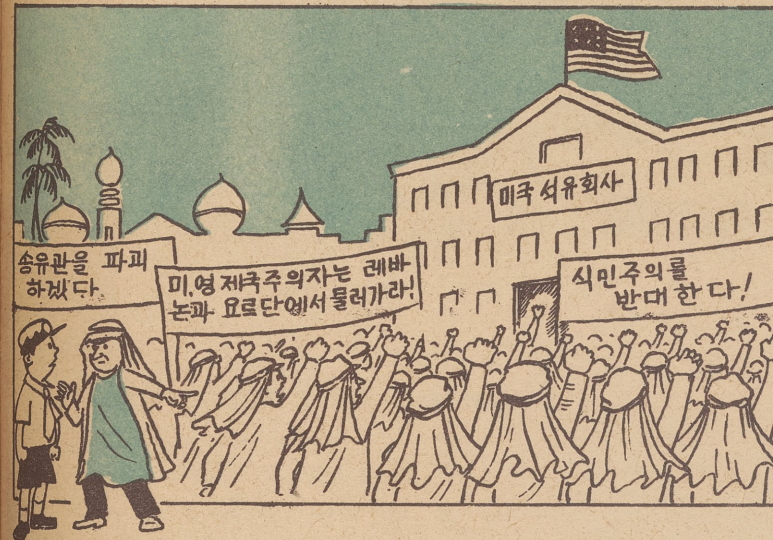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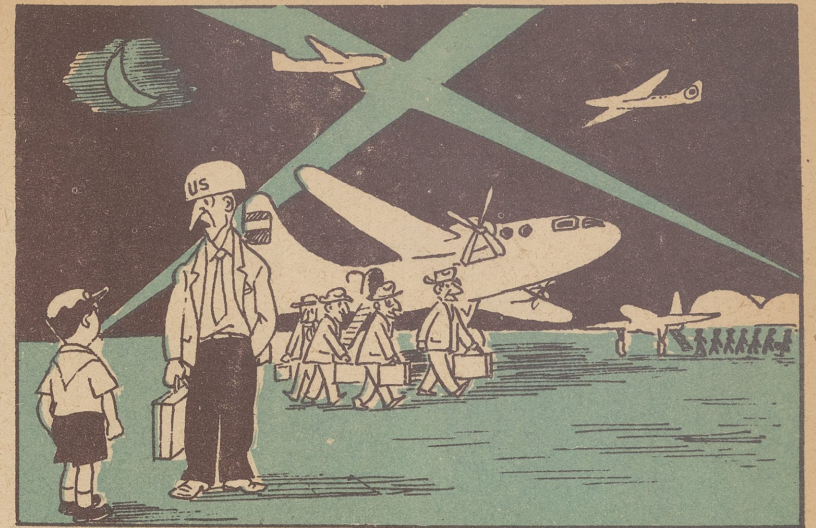
이윽고 수 많은 군중들이 물밀듯 몰려 들며 《후세인 왕을 타도하라!》 《영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몰아 내자!》고 소리 높이 웨치며 시위를 계속하는 것이였습니다.

(4) 7월 말 어느 날 밤중이였습니다. 이란의 메흐라바드 비행장에는 화란, 불란서, 서부 독일 등 여러 나라 표식이 달린 비행기들이 수많이 와 닿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 가 보았더니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온통 사복 입은 미국 병사들이였습니다.

《당신들은 무엇 하러 이 곳에 왔나요?》

《우리는 미국의 중근동 침략을 위해 할 수 없이 끌려 왔단다.》

미국놈들은 이렇게 중근동 침략을 위해 남몰래 밤중을 타서 이란에까지 자기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5) 《애, 넌 여기서 일하니?》

《그렇다, 그런데 넌 누구냐?》

《난 조선에서 로케트를 타고 이 곳 려행을 온 아이다.》

《야! 굉장한 려행을 떠났구나, 그럼 얘야 참 이제 조선에 돌아가면 미영 침략자들을 반대해 싸우는 이 곳 인민들의 투쟁 소식을 꼭 전하여라.》

이 곳 사우디 아라비야의 미국 석유 회사 로동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이 계속된다면 스에즈 운하 사건 때와 같이 놈들의 송유관을 모조리 까부실 것을 결의해 나섰다는 것입니다.

로동자들의 투쟁에 겁을 먹은 미국 놈들은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6) 8월 1일 씨리아의 다마스커스에는 수 많은 군중들이 앞을 다투어 가며 몰려 들었습니다.

나는 한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니?》

《레바논과 요르단에서 미영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지원하여 서명 운동에 참가한단다.》

이날 여기에서는 10만 군중들이 서명에 참가했습니다.

친애하는《소년단》의 독자 동무들! 나의 로케트 려행은 계속 될 것입니다. 안녕히.

천리마를 단 기세로 달리는 아저씨들의 뒤를 따라

본사 기자 **신 진 균**

황북 송림 제3 중 학교 대에서

여름 방학도 거의 다 지나 가는 어느 날이였다. 한낮 때가 되여 송림 역에 내린 나는 증산의 기세 드높이 들끓는 이 거리에서 한 떼의 소년단원들과 만났다.

3 대의 딸딸이에 파철을 가득가득 싣고 가는 그들은 이 곳 제 3 중 학교 대 소년 단원들이였다.

《어디로 가져 가는 길인가요?》

《지금 분단에 바치려 가는 참이애요.》

팔에 열성자 표식이 달려 있는 앞장 섰던 동무가 선뜻 대답하였다. 그러자 뒤에 섰던 반장인듯한 동무가 불쑥 나서며 《우리는 6분단 4반이애요. 우리 반은 학습에서도 언제나 제일이지요.》하고 어깨를 으쓱 추겨 올리며 자랑삼아 말을 늘어 놓는 것이였다.

나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느덧 십자'길에 이르렀다.

《선생님 저 게시판도 우리가 수집한 벽돌로 쌓은 거애요.》 또 한 동무가 이렇게 자랑을 꺼내 놓았다.

알고 보니 정말 이 거리 곳곳마다에는 이런 게시판이 30 개나 새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것이 모두 그들이 수집한 벽돌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나는 그들의 자랑하는 이야기에 어쩐지 마음이 끌려 그들과 함께 3중 학교를 찾아 가 보기로 하였다.

내가 3종 학교 운동장에 들어 섰을때 먼저 눈에 띄인 것은 분단별로 쌓아 놓은듯한 파철 더미였다.

나는 지도원 선생님을 찾아 가 먼저 이 파철 더미에 대한 이야기부터 묻기 시작하였다.

《저 파철은 이 곳 제철소 용광로 직장 로동자 아저씨들에게 보낼 우리의 선물이랍니다.》

지도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파철을 모으게 된 자세한 내용을 들려 주시였다.

워낙 송림시는 우리 나라 공업의 심장 황해 제철소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여서 쇠'물을 녹이는데 귀중히 쓰이는 파철 회수는 그들의 《ㅍ마 5개년 계획》 활동에서도 주요한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여 왔었다. 그런데 지난 3월 30일 제철소의 제 1호 용광로와 해탄로가 새로 건설되면서 이 곳 로동자들의 증산 기세가 더욱 높아가게 되자 이에 고무된 그들은 한 그람의 파철이라도 더 많이 모아 이곳 로동자들에게 선물할 것을 결의해 나섰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방학 동안에도 계속 분단, 반별 경쟁으로 열심히 파철을 수집하게 되였다.

그들은 이 사업을 통하여 고철 16 톤 575키로그람과 주철 8 톤 481 키로그람을 비롯하여 수천 메터에 달하는 각종 빠이프와 레일 등을 이렇듯 산'더미로 모아 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 거리 30 개의 벽돌 게시판에 대한 이야기는 이러하였다.

8.15를 앞둔 어느 날이 학교 6분단에서는 내각 결정 52호를 받들고 이 거리 게시판을 벽돌로 새로 쌓을 수 있게 벽돌 수집을 진행하기로 의논했었다.

그것은 거리를 보다 아름답고 문화적으로 꾸리면서 제때에 새 소식을 전해 주는 말없는 선전자 게시판도 이 거리에 어울리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모임이 끝나자 동무들은 이 날도 반별로 벽돌 수집에 나섰다. 4반 동무들은 반장 김 칠성 동무가 얻어 온 딸딸이를 끌고 나가 폭격에 무너진 집 터 자리를 파헤치며 벽돌을 하나 둘 얻어 내였다. 그러던 중 한 모퉁이에서 무더기로 깔려 있는 8,000 여 매의 벽돌을 얻게 되였었다.

이 벽돌이 곧 그들이 자랑하는 30 개의 게시판으로 된 것이다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훌륭히 도와 나선 그들은 이 곳 제철소 제 1호 용광로와 해탄로 건설 공사를 돕는 일에서도 보람찬 일들을 진행하였다.

지난 3월 말, 학교 대 위원회는 각 분단 열성자들로 황해 제철소 견학을 조직하였었다. 이 견학에서 그들은 하루가 새롭게 눈부신 속도로 변천되여 가는 새로운 현실을 똑똑히 보았다. 이 곳 로동자 아저씨들은 용광로 건설의 기한전 완수를 위해 새로운 기적을 쌓아 올리면서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던 것이다.

견학에서 돌아 온 그들은 《5.1절 전으로 완수될 용광로와 해탄로 건설 공사를 도와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하자!》라는 학교 민청 소년단 련합 모임을 가지고

◇ 수집한 파철을 분단에 바치러 가는 6분단 4반 동무들 ◇

◇ 수확을 앞둔 해바라기 포전은 훌륭한 로력의 열매를 자랑한다 ◇

한결 같이 용광로 건설 공사를 도와 나설 것을 결의하였다.

그들의 이 발기는 학교 선생님들과 당 정권 기관으로부터의 지지와 찬성을 받았다.

그 후 1,000 여 명의 소년단원들은 학교 내 민청원들과 함께 공사장에 나갔다.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는 로동자 아저씨들의 힘찬 투쟁에 고무된 그들은 쉬는 시간도 아껴가며 열심히 벽돌을 날랐다.

《한 장의 벽돌이라도 빨리 날라다 쌓으면 그만큼 더 빨리 완공을 앞당길 것이 아닌가!》

동무들은 서로 이렇게 타이르며 고무하며 일'손을 재여 갔다.

이날 해탄로 축조 공사에 동원된 1분단 동무들은 높이 22메터나 되는 높은 곳까지 오르내리면서 계속 벽돌을 날랐다. 물론 처음에는 주저하는 동무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분단 위원장 배 순옥 동무와 류 동자 동무들이 앞장을 서자 주저하던 동무들도 뒤따라 다 같이 일떠 나선 것이다.

차차 일에서 성수가 난 그들은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운반하는가를 내가 하면서 열심히 일하였다.

작업은 이튿날도 또 그 이튿날도 계속되였다. 이렇게 그들은 한 달 동안을 계속 건설 공사를 도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기간 어려운 일의 앞장에서 모범적으로 일해 온 류 동자, 리 동찬 동무들에게는 금속 공업성으로부터 《산업 모범 휘장》이 수여되기까지 하였다.

리 동찬, 류 동자 동무들에게 수여된 두 개의 휘장은 사회주의 건설을 도와 용광로 건설 공사에 이바지한 이 학교 대 소년단원들의 로력 성과를 자랑하는 귀중한 선물인 것이다.

이렇듯 용광로 건설 공사를 도와 자랑찬 성과를 올린 그들은 지난해 《피마 5개년 계획》활동을 통한 피마주, 해바라기 재배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도로 주변과 공터들에 그들이 심어 가꾼 7만 5천 여 포기의 피마주에서는 약 15 톤의 수확을 예견하고 있으며 6만 7천 여 포기의 해바라기에서도 10 여 톤의 수확은 문제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른 봄 분단 모임에서 100 마리 토끼 분단을 만들것을 결의하고 현재 200 여 마리의 토끼를 기르고 있는 12분단 동무들의 호소를 받들고 이 학교 소년단원들은 현재 3,000 여 마리의 토끼를 훌륭히 길러 내고 있다.

이제 그들은 금년 겨울까지 2만 마리의 토끼를 길러 이 곳 편의 협동 조합에 제공할 것을 계약했다는 것이다. 이 계약을 훌륭히 실천해 내기만 한다면 토끼 한 마리의 고기를 0.5키로그람으로 치드라도 그들은 실로 1만 키로그람의 고기와 2만 개의 털 모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가죽을 나라에 제공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가지가지 보람찬 일들을 훌륭히 해 온 그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넓고 깊게 다지며 래일의 사회주의 건설자로 준비하는 사업에서도 훌륭한 일들을 진행하여 왔었다.

나는 지도원 선생님과 함께 이 학교 크루쇼크 실들도 견학하게 되였다.

40 여 개의 전검 기구들이 갖추어져 있는 무선 통신 크루쇼크 실에 들어 섰을 때 거기서는 마침 크루쇼크원들의 송 수신 훈련이 한창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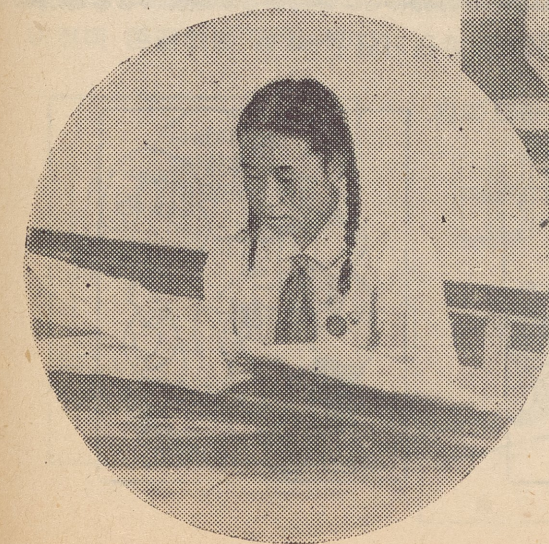
삐—삑삑

전검을 누를 때마다 스피카를 통하여 울리는 송신 부호를 받아 크루쇼크원들은 열심히 문장을 써 나가는 것이였다.

송신이 끝나면 그들은 저마다 자기가 받아 쓴 문장을 정리하고 서로 대조해 보기도 하면서 계속 훈련해 갔다.

그들은 벌써 1분간 60~70 부호까지 능숙하게 송 수신할 수 있게 되였다. 더우기 이번 졸업생 중 전 미옥, 김 명희 동무들은 지난 7월 말에 있은 공화국 무선 통신 3급 자격자 시험에서 최우등의 성적으로 합격했다는 것이다.

이제 그들은 금년 말까지에 80~90 부호까지 송 수신할 수 있게 훈련하며 새해에는 모두가 공화국 무선 통신 3급 자격자 시험에 합격하도록 힘쓰겠다는 것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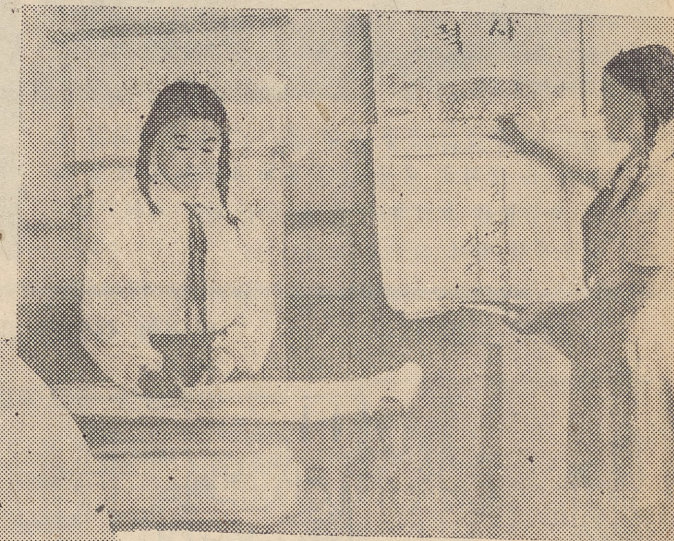
나는 래일의 사회주의 건설자로 훌륭히 준비해 가는 어린 무선 통신 기술자들의 능숙한 솜씨와 새로운 결의에 감탄하였다.

무선 통신 크루쇼크실에서 나온 나는 다음 물리 실험실로 들어 갔다.

각종 실험 기구 400 여 종이나 마련되여 있는 이 실험실은 이 학교 소년단원들의 또 하나의 자랑이였다.

지난 해 이 학교 대 소년단원들은 물리 크루쇼크원들의 노력에 의하여 갖추어진 이 실험실에서 2—3학년 물리과의 매 과목 실험을 훌륭히 진행하여 왔었다.

그들은 공부가 끝난 방과 후마다 짬만 있으면 이 실험실에서 배운 지식을 넓고 깊게 다져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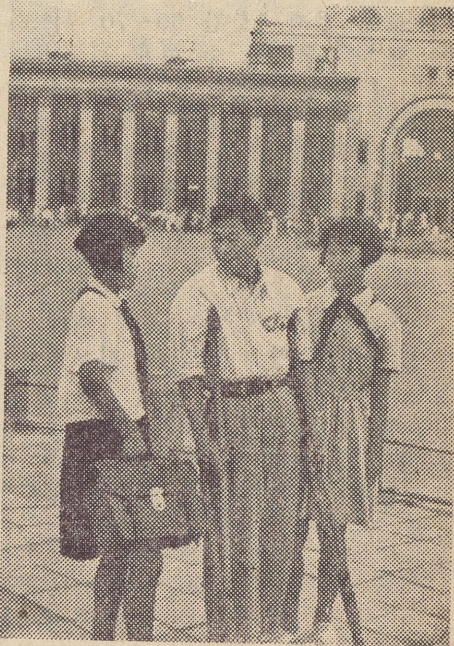
그리하여 지난 해 물리과 성적에서는 재적 인원 340 명 중에서 2 명을 제외한 전원이 우등, 최우등의 성적으로 졸업, 진급할 수 있게 되였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의 빛나는 승리를 위하여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는 아저씨들의 뒤를 따라 가지가지 훌륭한 일들을 진행해 온 그들은 이렇듯 학습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올린 것이다.

↑ 방학 동안 선생님들을 도와 만들어 낸 패도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간다.

← 김 일성 원수의 혁명 활동 연구실에서 스크래프들을 정리하는 류 동자 동무.

이런일을 본받자!

평양 구경을 왔던 김책시 4중 학교 정 순복, 박 명희 동무들은 출장 갔다 오시는 영예 군인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량손에 지팽이를 짚고 들가방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힘들가?— 이렇게 생각한 이들은 달려 가 아저씨한테서 들가방을 받아 들었습니다.

《애들아 어서 오너라.》 앞서 가던 동무들의 부름에 우루루 뛰여 온 중화군 세찬 인민 학교 4학년 김 승일 동무네 반 동무들은 고개 마루를 힘들게 올라 가는 협동 조합 달구지를 밀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동 공원입니다. 벤취에 앉으려고 보니 못이 솟아 올라 옷도 찢기 위험하나 벤취도 찌그러져 갑니다.

《나라의 물건은 내 것과 같다.》

평양 9중 인민반 윤 천해 동무와 그의 동무들은 달려 가 마치를 들고 와서 벤취를 고쳐 놓았습니다.

《참 고맙다.》

멀리까지 이어다 준 짐을 받으며 아주머니는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고 물었습니다,

《평양 사대 부속 고중 초급반에 다닙니다. 리 승희예요》

동무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무엇을 쥐였던 손인가요?

이것이 존경하는 말입니까?

왼쪽으로 걷는다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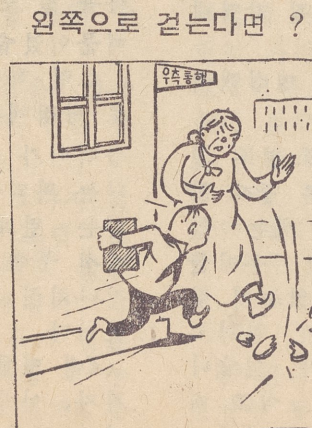
그가 던진 것은……

《학생이 흘쳤구만 이 돈을…》

소년 소설

량 심

글 최 동 식
그림 오 영 복

—◇—

나는 본시 묘한·장난질을 꽤 좋아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나의 동무 상덕이는 이렇게 타이르군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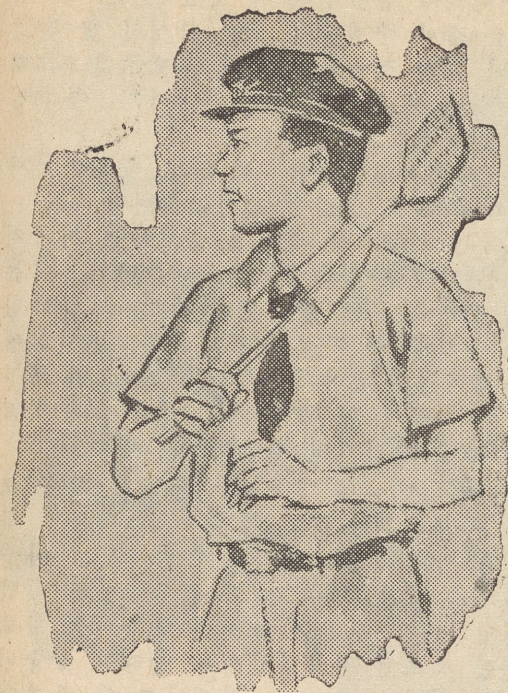
《얘 명균아! 인젠 그런 장난질 작작해라, 학교 이름까지 팔리운다.》

그러나 나는 상덕이의 충고를 명심해서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내 오다가 며칠 전에 있은 일입니다. 그 날도 나는 상덕이와 함께 학교에서 돌아 오고 있었습니다. 해는 벌써 서쪽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들 집은 읍 한쪽 구석에 자리잡고 있는데 집 근처에는 아주머니 한 사람만이 일하고 있는 조그마한 국영 상점 하나가 있습니다. 상점은 작아도 공업 제품, 식료 제품 하여 없는 물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와 상덕이는 김 일성 원수님의 혁명 활동 연구 수첩을 만들기에 알맞는 그런 학습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 보기 위하여 이 상점에 들렸던 것입니다. 있다면 다음 날 돈을 마련해 가지고 와야 하였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런 학습장은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로 상점에서 나오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상덕이가 상점 식료품 매대에서 날아 다니는 파리를 봤던 것입니다. 이 애는 나와는 반대로 장난질은 하지 않지만 그 대신 무슨 좋은 일을 보기만 하면 그저 지나치지 않는 그런 성미를 가진 아이입니다.

《얘 명균아! 우리 저 파리 잡아 주구 가자, 아주머니 혼자서 미처 파리 잡을 새가 있겐…》

상덕이는 이 일이 너무나 뜻밖이였다.

—◇—

이 말을 들은 상점 아주머니도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참 고마워요. 그 놈의 파리가 어디서 자꾸 날아드는지 미처 잡지 못하겠다니까… 어서 좀 도와주세요, 어서…》

나는 이런 일이 싫었지만 이렇게 되고 보니 상덕이의 뜻을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에 들고 다니던 파리채로 파리들을 때려 잡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마음 속으로 상덕이를 욕해 주었습니다.

(아이새끼두 참, 별 뚱단지 같은 생각을 다 끄집어 내 가지구 나까지 얼른 집으로 못 가게 만들었다니까…)

이래서 나는 파리 잡는 일에 그다지 열성을 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느덧 또 무슨 묘한 장난'거리나 하나 생기지 않을 것인가 하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웬 아주머니가 엿을 사가지고 상점 문을 나가는데 마침 한 누나가 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주머니가 든 엿에 그 누나의 비단 치마가 묻어서 좀체 떨어지지 않아 모두 한 바탕 웃어댔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자 묘한 장난'거리가 하나 머리에 얼핏 떠올랐습니다.

나는 막 달음질쳐 집에 갔습니다. 집에는 갓 사다 둔 물엿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물엿을 얼른 파리채에 발라 가지고 다시 상점으로 돌아 왔습니다. 해는 서산 마루에서 뉘엿거리고 있었습니다. 상점 안은 파리를 잡고 있는 상덕이 밖에는 없었습니다. 판매원 아주머니도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 어디 갔댄?》 상덕이가 머리도 돌리지 않고 불쑥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엘 갔댔어…》

《왜 또 왔니? 달아났으면 집에 그냥 눌러 있을게지…》 상덕이는 꽤 노했습니다.

《내가 뭘 달아난 줄 아니? 갑자기 어머니한테 알려드려야 할 일이 생각나서 그랬지…》

나는 상덕이의 물음에 대답하면서도 과자가 들어 있는 함들을 줄곧 살펴 보았습니다. 나는 물엿을 칠한 파리채로 과자를 묻쳐낼 계획이였습니다. 그러나 과자가 들어 있는 함들의 뚜껑은 이미 죄다 닫혀져 있었습니다. 슬그머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과자함 뚜껑 우에 절반으로 끊어진 100 원짜리가 석장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자 판매원 아주머니가 그 돈을 붙이기 위하여 어디론가 풀을 구하려 나간 것이 짐작이 갔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돈이라도 어디 묻쳐내 보자) 이렇게 마음 먹자 나는 매대에서 팔을 쑥 뻗쳐 파리채로 그 돈을 몽땅 묻쳐내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주머니가 뒤'문으로 들어 왔습니다. 나는 이 순간 그만 가슴이 철렁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무심결에 파리채에서 돈을 떼내여 땅'바닥에 떨구었습니다. 그리고는 상덕이더러 얼른 집으로 돌아 가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은 틀려졌습니다.

《가만이 있자… 돈이 어디 갔나?… 소년단원 동무들 여기 돈 몰라요?》 아주머니는 돈이 없어진 것을 곧 알아 차렸습

니다.

《아니요. 우린 모르는데…》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상덕이는 채 영문을 몰라 《뭣이 잃어졌나요.》하면서 그 아주머니한테로 달려 갔습니다.

《어디 바람에 날렸나?… 소년단원 동무들도 좀 찾아 봐 주세요.》

상덕이와 아주머니는 매대 안에서 얻어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여기 돈이 날려 왔다고 할가… 안돼… 물엿 묻은 것을 보면 당장 알아낼거야… 기왕 이렇게 된 바에야)

나는 땅'바닥에서 돈을 주어 호주머니에 넣다말고 또 생각했습니다.

(만약 저 아주머니가 내 호주머니를 들추게나 된다면…)

나는 돈을 손에 구겨 쥔 채 잠시 망서리였습니다. 문득 매대 우에 놓인 상덕이의 책가방이 눈에 띄였습니다. 나는 얼른 그 돈을 그 애 책가방 모서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열심히 얻어 보는 체 이리 저리 돌아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머니의 웨침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이것이 누구 책가방이요?》

《제합니다. 왜 그러세요.》 상덕이가 자기 책가방 께로 달려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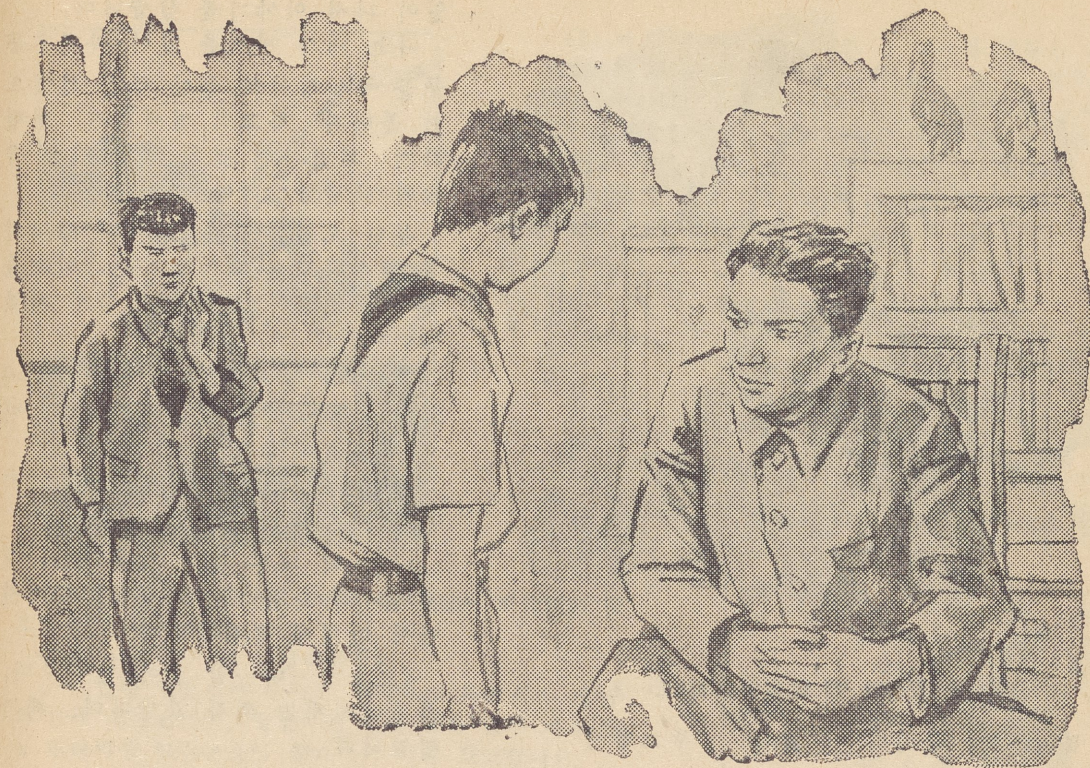
나는 얼른 그 돈을 상덕의 책가방 모서리에 밀어 넣었다.

《학생이 훔쳤구만 이 돈을… 난 또 파리를 잡아 주겠다니 좋은 학생인 줄 알았더니 요런 짓들을 하자고 그랬구만…그래도 붉은 넥타이를 달고 다니기가 부끄럽지 않아요?》

상덕이는 이 일이 너무나 뜻밖이여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장난질 좋아하는 자기의 나쁜 버릇을 탓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서 제 잘못을 솔직히 내놓을만한 용기를 못 가졌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눈'덩어리가 굴러가면 갈 수록 자꾸만 커지기만 하듯이 이 일은 시간이 갈 수록 점점 더 엄중해 가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나가니까 벌써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들 일을 죄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으로 그 상점 아주머니가 학교에까지 우리 일을 알려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실에 들어서는 길로 분단 지도원 선생님한테로 불리워 갔습니다.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도 와 계셨습니다. 나는 전날 그 상점에서보다 가슴이 더욱 철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일을 무사하게 지낼 수는 도저히 없다는 것이 더욱 뻔해졌습니다.

상덕이는 선생님들 앞에서는 자기가 절대로 안 그랬다고 빽빽이 말할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가 하지 않은 죄를 뒤집어 쓰진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선생님들은 상덕이와 나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덕이가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애당초 믿지부터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선생님들은 내가 장난질을 잘 하는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은 나중에 가서는 나를 따질 것이 뻔합니다. 나는 소년단에서도 학교에서도 쫓겨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상덕이가 그랬다면 나처럼 쫓겨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 애는 본시 좋은 소년단원이라고 여겨 왔으니까요.

《상덕아! 네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 정말이냐?》 《네!》

이래서 나는 선생님들 앞에서 속으로 —인젠 될 대로 돼라. 까짓껏—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선생님들을 곧바로 바라 볼 수가 없어서 창 밖을 내다 보고 있었습니다.

《상덕이! 네가 그런 짓 했다는 것이 정말이냐?》

분단 지도원 선생님의 목소리입니다.

《네!》

상덕이가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나는 이 말에 너무나 깜짝 놀라 흘끔 상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상덕이는 분단 지도원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음—네가 그랬다—…그러면 네가 여때껏 한 것은 모두 거짓이였구나. 나는 너를 잘못 봤다. 속은셈이구나.》

선생님은 너무나 분하여 주먹까지 불끈 쥐는 것이였습니다. 상덕이는 그만 머리를 떨구었습니다. 내 입에서는 금시 《제가 그랬습니다. 상덕이 한테는 죄가 없습니다.》라는 말이 튀여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소년단에서와 학교에서 쫓겨날런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만 나의 용기는 죽어 들어 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란 빨리 퍼지는 법입니다. 어느새에 우리 분단 동무들은 물론 전교 학생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그뿐이 아니였습니다. 낮 유선 방송을 통하여 온 읍내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되였습니다. 유선 방송에서는 제 2중 학교 1학년 아무개가 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인제 우리 학교 학생들은 머리를 들고 떳떳이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일은 끝내 우리 분단 동무들과 우리 학교 전체 학생들의 분격을 터뜨려 놓고야 말았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당장 모임을 열자는 것이였습니다.

이 날 방과후 드디어 분단 모임이 열렸습니다. 나는 우리 분단 동무들이 이렇게까지 분격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여지껏 처음 보았습니다.

《… 우리는 천리마를 타고 달리는 사회주의 사회에 사는 소년단원입니다. 국영

《조금만…내 할 말이 있습니다…》

상점의 돈을 훔친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방해합니다…》

어떤 아이는 마치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타이릅니다.

《상덕이! 우린 열적어서 운동장으로 놀려도 못 나가게 됐다. 모두들 우리 보고 학교 간판에 흙칠한 분단 하면서… 몰아댄다. 책임을 져라…》

한 아이는 주먹으로 책상을 치면서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상덕이는 머리를 숙인 채 그냥 앉아 있습니다. 나는 상덕이가 결국은 나 때문에 저렇게 비판을 받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니 막 가슴이 죄여들었습니다.

《…상덕이는 분단 열성자로서 그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 우리들 앞에서는 잘 하는 체하고 뒤에 돌아가서는 그런 짓을 합니다.

동무들! 상덕이를 열성자로서 떼 버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열성자들 중에서 한 아이는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련신 일어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일이 자기 동무를 구렁텅이에 몰아 넣게 되였으며 분단과 학교의 명예까지 더럽히게 되였다는 것을 정말 가슴 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분단 모임에서는 드디어 상덕이를 열성자로서 제명하자는 의견을 분단 위원장이 모두에게 묻게 되였습니다.

《…상덕 동무를 분단 열성자로서 제명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제 동무들에게 묻겠습니다.

상덕 동무를 열성자에서 제명하는데 찬성하는 동무는…》

나는 더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면서 이렇게 웨쳤습니다.

《조금만…내…할 말이 있습니다. 상덕이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한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털어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인제 아무 것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년단원답지 못했습니다. 제명…한대도…》

그러나 동무들은 나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것을 하지 않기를 약속하고….

8호 현상 문제 당선자

(해답은 40페지에)

학교	이름
함남도 신창군 화동 중학교	서 만 술
함남도 신흥군 대동 중학교 (인민반)	리 경 식
함북도 길주군 제13 중학교	윤 옥 자
함북도 청진 제 1 중학교	박 태 운
강원도 원산 제13 중학교	신 동 식
강원도 김화 고중 초급반	김 종 희
황북도 전산 고중 초급반	민 충 호
황북도 서흥군 송월 중학교	류 준 영
황남도 평천 제2 중학교	조 양 동
평남도 개천 고중 초급반	신 재 호
평북도 삭주 제1 중학교	김 광 훈
평북도 신의주 녀고중 초급반	서 대 용
함남도 신창군 만춘 인민 학교	전 수 송

(1)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 온 순희와 영길은 식물을 채집하러 뒤'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눈에 새로운 식물들을 하나하나 채집하면서 점점 산 속 깊이 들어 갔습니다. 이때 들꽃 우에 앉았던 까만 범나비 한 마리가 펄럭 날아 오르더니 너울너울 날아 갔습니다. 영길은 포충망을 휘두르면서 나비를 좇아 갔습니다. 순희도 뒤따라 달려 갔습니다.

(2) 별안간 으슥한 숲 속에서 웬 사람이 히죽히죽 웃으면서 불쑥 나섰습니다.

《그런 나빈 잡아서 무엇하니?》

깜짝 놀란 영길이와 순희는 주춤하고 서서 아무 대'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길이는 벌써 멀리 날아 가고 있는 범나비를 아쉬운듯이 물끄러미 바라 보았습니다.

《식물도 채집하는 모양이지 어디 좀 보여 주렴.》

(3) 《너희들은 이런 풀을 채집해서 뭘하니?》

《우린 자연 크루쇼크원입니다.》

《허허 그래, 좋은 풀을 캐였구나 너희들은 이것이 무슨 풀인지 아니?》

《모릅니다. 그저 첨 보는 풀이길래 캤습니다.》하고 순희는 대답했습니다.

《이건 깽깽이 풀이라는 건데 조황련이라고도 한단다. 이 뿌리를 잘 말려서 먹으면 위가 튼튼해 진다.》

(4) 영길은 참 유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저씬 뭘 하시는 분이세요?》하고 물었습니다.

《난 지질 탐사대원이다……참 너희들은 자연 크루쇼크원들이기 때문에 광물 표본도 필요되겠지 내가 이런 걸 선사할가. 이건 동광이구, 이건 금광이다. …… 자! 발을 좀 쉬여 갈가》하면서 풀 우에 펄석 들어 앉았습니다.

(5) 《난 오늘 아침에 너희 마을 리당 위원장을 만나서 사업 토의를 하고 지금 군으로 가는 길인데 어느 길로 가야 빠르지?》

《큰 신작로로 가면 삼십 리 길인데요, 어째 이 험한 산'길로 가시나요?》

《난 광맥을 찾아 다니는 지질 탐사대원이니까. 될 수 있으면 산'길을 택해야지. 너희들은 내 길 안내를 해주겠니?》

←

→

(6) 《길 안내를 해 드리지요… 우리도 가면서 곤충과 식물을 채집하구요.》하면서 영길은 순희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순희도 고개를 끄덕하고 일어섰습니다.

《아저씬 박 세훈 선생을 잘 아시겠지요?》

《어느 박… 세훈 선생 말이냐?》

《그 지질학자 말이예요.》

《잘 알다말다… 참 그 선생을 만나본지도 퍽 오랬군…》

(7) 영길에게는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세훈 선생은 2—3일 전까지 이 지방에 와 있던 지질 탐사대의 대장이시다. 그때 그이는 학교에서 쏘련의 과학 발전에 대한 강연을 해 주셨다. 그런데 같은 탐사대원이면서 만나 본지 오라다고 하니 이상하지 않는가… 그리고 리당 위원장님을 만났다는 것도 이상하구나 그이는 지금 군 인민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

→

(8) 영길은 《지질 탐사대》 아저씨를 새삼스럽게 훑어보았습니다. 로동복을 말쑥하게 입었는데 바지'자락은 무릎 밑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물에 젖었던 자리입니다.

《바다로 올라 온 간첩!》 하는 생각이 영길이 머리를 번개 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간첩이 아닐 수도 있지만 소년단원은 수상한 사람을 그대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9) 영길은 분주소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서 혼자 빠지면 《탐사대원》이 무슨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이때 길'가에서 날카로운 아까씨야 그루터기를 발견한 영길에게는 얼핏 좋은 생각이 머리에 떠 돌았습니다. 영길은 무엇을 더 생각할 여유도 없이 눈을 꾹 감고 그것을 콱 밟았습니다 영길은 《앗!》 하는 비명을 올리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

←

(10) 영길의 발'가락 사이로 붉은 피가 주루루 흘러 내렸습니다. 놀란 순희는 급히 손'수건을 꺼내여 상처에 대고 동여맸습니다.

《순희, 난 더 못 걷겠어, 이 선생을 왕바위까지만 혼자 안내해 주고 오지.》

순희는 영길의 말의 뜻을 곧 알아 차렸습니다. 왕바우 가까이에는 경비대원 아저씨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1) 순희와 《탐사대원》들이 나무 숲으로 사라져 버리자 영길은 발'가락이 쿡쿡 쑤시는 것도 잊어 버리고 마을로 향하여 쏜살 같이 달려 갔습니다. 영길은 골짜기로 통하는 지름'길로 막 내려 갑니다. 숨은 하늘에 닿을 듯이 가빴습니다.

《빨리 빨리》 마음은 자꾸만 달려도 다리는 제대로 놀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

←

(12) 영길이의 먼저 간 눈치를 알아 차린 순희는 왕바우 쪽을 향해 걸어 갔습니다.

《얘야, 우리는 길을 잘못 들지 않았니? 방향이 틀린 것 같은데》 하고 라침판을 들여다 보면서 《지질 탐사대원》은 물었습니다.

《아니예요, 요 고개를 넘어서 오른 쪽으로 골짜기를 내려 가면 이내 곧은 길에 나서요.》 하고 순희는 자못 태연스럽게 대답하고 계속 앞장 서 걸었습니다.

(13) 《탐사대원》은 무슨 이상한 눈치를 차렸는지 순희의 얼굴을 뚫어지게 쏘아 보면서 《넌 날 속이는 게 아니겠지?》 하고 주위를 한 번 휘둘러 보고 나서 라침판을 다시 들여다 보더니만

《넌 나를 바다 쪽으로 이끌어 왔군 그래》 하며 당장이라도 잡아 죽일 듯이 순희의 손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순희는 그만 《으악》 소리를 질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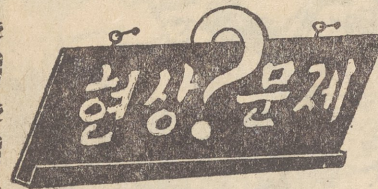
←

☆

→

(14) 이때 《섯! 손 들엇!》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왕바우 밑 숲 속에서 권총을 든 내무원 아저씨와 경비대원 두 명이 따바리를 들이대고 불쑥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영길이도 뒤따라 나섰습니다.

질겁을 한 《탐사대원》은 순희를 놓고 손을 쳐들었습니다. 내무원 아저씨는 《탐사대원》의 몸 수색을 하였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위조 증명서와 소형 사진기가 나왔습니다. 《지질 탐사대원》으로 가장한 그 놈은 미군놈들이 파견한 간첩이였습니다.

어데다 놓으면 좋을가요

영희네 네 형제는 모두 학교에 다닙니다. 영희 아버지는 이번 공화국 창건 10주년 기념 상금으로 이들에게 좋은 책상 한 개씩과 전기 스텐드 하나를 사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네 개의 책상을 어떻게 놓고 전기 스텐드를 어데다 놓아야 네 형제가 똑같은 거리에서 모두 왼 쪽에서 빛갈을 받을 수 있을가요?

◇

8호 현상 문제 해답 (당선자는 36페지에)

1의 해답

2의 해답

ㄱ. 차도에서 뽈을 차지 말 것, ㄴ. 우측 통행할 것, ㄷ. 공원의 나무를 꺾지 말 것, ㄹ. 휴지는 휴지통에 버릴 것, ㅁ. 분수에서 물'장난 하지 말 것, ㅂ. 신발을 신은 채 의자에 올라 서지 말 것.

편집 위원 김 학연(주필) 강 효순 림 홍은 박 응호 송 정우 정 택선 조 순형

1958년 9월 15일 인쇄 1958년 9월 22일 발행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58년 제 10호 (총 108호)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41074 값 25원 80,000부 발행